

2014년, IS 세력 확대로 얼룩진 한 해!

종교기자협회, ‘2014 10대 종교뉴스 선정 발표

전세계 종교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네트워크인 “종교기자협회”(Religion Newswriters Association, RNS)가 2014년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많이 미디어나 지면에 보도된 10대 종교에 관련된 뉴스들에 대해 투표했다. 그 결과로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교 뉴스가 무엇인지 결정됐다.

2014년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이라크, 시리아 내 세력 확대와 서방인 참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등 중동 지역의 혼란도 극심했던 한 해였다.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의 비무장 흑인 사살에 따른 항의시위,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 홍콩에서는 행정장관 선거제도 반대 시위 등 각국 내 갈등도 이어졌다. 또 서아프리카 3개국을 중심으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로 1만7천여 명이 감염되고 6천여 명이 사망, 전 세계로 공포가 확산했다.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재검증하는 역사수정주의를 이어갔다.

이러한 사건과 뉴스들의 흐름 속에서 지난 1970년대 초반부터 해마다 “10대 종교뉴스”를 선정해오고 있는 RNS는 ‘2014년의 10대 종교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2014 Top 10 Religion Stories).

2014년 한 해 동안 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뉴스는 단연코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를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이슬람극단주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이슬람국가(IS)”의 창궐이다. 다음으로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신앙적 불온종(Obby Lobby, Conestoga)으로 크리스천으로서의 기업 윤리와 양심을 선언해준 미 대법원의 판례가 2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그리고 타종교나 동성연애자들에게 포용과 관용을 선언하며 다가선 프란시스코 교황의 인기와 공동 3위로 선정됐다.

1. 이슬람극단주의로 무장한 테러조직 IS, 이라크와 시리아까지 세력 확장



오래전부터 고대 기독교의 유산과 정신을 지탱해오고 있는 이라크 내 근거지인 모술 점령으로, 초대 기독교 때부터 활동을 해온 고대 기독교 공동체들이 유배를 당하고, ‘야지디스(Yazidis)’나 다른 종교적 소수 단체들이 거의 멸절당할 수 있는 위협을

받게 됐다. UN, 크리스천과 많은 무슬림 단체들이 IS가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송출한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의 참수형을 비인간적이며 비이슬람적이라고 강경하게 비판했다.

2. 미 대법원의 5-4 결정으로, 크리스천 기업 ‘하비 로비’ 권리옹호 판결



‘오바마케어’ 안에 있는 임신조절 명령에, 리스천의 기업 윤리와 야심에 따라 이를 반대한 기업(Hobby Lobby, Conestoga)에 대해 미 대법원이 5-4 결정으로 존중하는 판례를 선언했다. 동 판례는 종교적 자유 회복 법령의 승리로 간주됐고 미전역에서 크리스천다운 양심과 이에 반대하는 여성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뜨거운 감자로 논쟁이 격화됐다.

3.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수록 갈등 심화 무력 충돌(공동) 권원시간과 같은 양국 간의 갈등은 시인



들까지도 납치, 살해하는 행태로 불거지면서, 드디어 20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비화됐다.

3.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프란시스코 교황(공동)



최초로 비유럽권 출신으로 교황에 선출된 프란시스코 교황의 거침없는 행보, 즉 동성연애자들과 그리스정교회에 대한 카톨릭의 범죄에 대한 사죄 그리고 진화론과 같은 과학적 논리 수용이라는 포용과 관용이 그를 가장 대중적인 교황으로 만들었다.

4. 미 주류교단, 동성결혼에 진일보한 포용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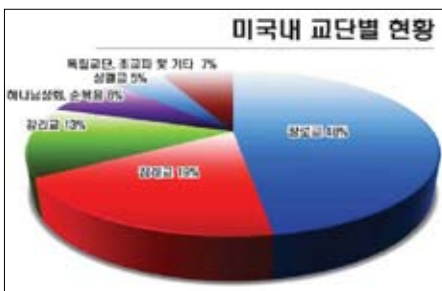
주류교단에게 있어 동성결혼 집례와 게이·레즈비언 성직자들에 대한 안수 문제는 항상 교단 총회를 들끓게 하는 논쟁 중의 논쟁이다.

〈16면으로 계속〉

다사다난 2014년...본지 보도 선정한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2014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15년 새로 맞을 해를 준비할 시기다. 이에 본지는 2014년 송년호를 제작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이슈가 됐던 한인교계관련 뉴스 10개를 선정해 게재하고 2014년을 마무리한다. 기사 중요도에 관계 없이 순서는 빠른 호수부터 시간 순으로 게재했다.

1. 미주한인교회 리스팅(1467호 1면)



미국내 한인교회 수가 총 4,15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013년)에 비해 125개가 줄어든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78개국의 한인교회는 1,299개로 나타났다.

본지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한인교회주소록에 따르면 2013년 11월 현재 미국내 한인교회 중 주별 1위는 캘리포니아(1,214), 2위 뉴욕(410), 3위 뉴저지(236) 4위 버지니아(202), 5위 워싱턴(196)으로 전년도에 비교해 4.5순위가 바뀌었다. 지난해 4위였던 일리노이는 7위로 밀려났으며 전년도 5위였던 버지니아가 4위로 한계단 올랐다. 교회수는 캘리포니아 50교회, 뉴욕 41교회, 뉴저지 15교회가 감소되는 등 모든 지역의 교회가 감소현상을 나타냈다.

2. 남가주교계 구원파 박옥수 집회 침묵 및 남가주교계 이단집회 대처 시급(1478호 9면, 1486호 9면)

남가주에서 구원파 박옥수 집회와 신천지 이만희 집회가 열렸지만 남가주교협 등 기독교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신천지 집회가 5월 22일 오후 7시 칼슨에 위치한 칼슨커뮤니티센터에서 ‘Bring Back Our Peace Now’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신천지측은 집회일인 22일 오후 5시 LA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입국장소인 탐브레드리 공항에서는 교주를 환영하는 인파로 안전인해를 이뤘다.

또한 5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바이블 크로세이드’라는 주제로 열린 구원과 집회에 대해 지역 한인교회들은 집회참석 자체 등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았다. 남가주교협 등 교계단체도 침묵으로 일관해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사명을 저버리게 됐다. 이번 집회는 한어권이 아닌 영어권 한인들을 비롯 타인종까지 공략하는 집회로 열렸다. 집회 전 한인 타운을 비롯한 인구밀집지역에 전단지들을 나눠주고, 페어팩스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광고판을 비롯해 버스정류장 광고판에 광고를 하는 등 대대적 홍보를 했다.

남가주교협과 OC교협을 비롯해 12개 교계단체는 지난 2012년 1월 17일 신천지 등 이단들의 활동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같은 달 24일에 상호업무협정(MOU)을 체결한 바 있다.

3. 미주 각 지역 한인교회 부활절 연합새벽예배(1480호 1면, 3면, 10면)



‘주님이 다시 사셨네’, 부활주일 새벽 미주 각 지역에서는 주님이 다시 사심을 찬양하는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곳곳에서 일제히 드려졌다.

서부지역은 오렌지카운티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목사)에서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목사)와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김영찬목사), 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복수 장로)의 공동주최로 드려졌으며 말씀은 한기홍 목사가 맡았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사우스베이 목사회(회장 김병용목사)주관으로 토렌스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려 김병용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한편 동부 뉴욕지역은 뉴욕교협 주최로 24지역에서 각각 드려졌다. 플러싱 제4지역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는 행복한 교회(담임 이성현 목사)에서 열려 전희수 목사가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예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부활절 절기를 마친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은 평가회를 통해 “24지역으로 나누어 드려진 부활절 연합새벽기도회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고 현금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경제악화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평했다.

〈16면으로 계속〉



2면

돈이 주는 행복감, 한계 있다!



3면

“단 몇분간 확인 못해도 손이 떨릴 그러면 당신은 스마트폰 중독자다”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R원장)



16면

새책소개 : 예수, 내 삶의 내비게이션 내 인생의 건축가 하나님의 청사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학교신학교

www.rptse.com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교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5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 출 서 류 ◇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②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③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④ 신앙고백서 1부
- ⑤ 명함판 사진(2"×2") 2매
- ⑥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①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퀀츠장로교회 내 2층)
- ② 원서접수마감 : 2015년 1월 23일(금) 오후6시
- ③ 입 학 시 험 : 2015년 1월 24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④ 개 강 부흥회 : 2015년 1월 26일(월) - 28일(수) 저녁 8시
- ⑤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 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한해를 회고하며!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2014년 한해를 마감하는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5년간의 전 세계 10대 뉴스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 특기할 만한 내용은, 강대국의 지도자로 미국 역사 최초로 흑인인 오바마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였고, 시진핑이 중국 주석이 되어 집권하게 되었고, 푸틴이 러시아 재선 대통령으로, 일본의 아베 총리로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한국에서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당선되는 등 각국의 지도력이 재편성되었다. 지구촌 여러 국가에서는 처참한 자연재해와 내란으로 수많은 인명의 사상과 천문학적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필리핀에서는 태풍으로, 일본과, 칠레, 아이티에서는 대지진으로, 태국과 파키스탄은 홍수로 나라가 큰 고통을 겪었고, 시리아에서는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엄청난 수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어뢰에 의해 천안함의 침몰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남북 간에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불안이 가중되어 가고 있다. 또한 금년 1년 가까이 한국 사회를 뒤흔든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사망자 295명, 실종 9명)과 육군의 총기난사 사건 등이다. 특히 한국의 교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복음전파와 선교사 파송, 교회개혁, 선한 일에 힘쓰는데 불구하고 위기에 봉착하여 전도가 멈춰지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교인들이 타 종교로 이동하는 개종의 참담함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성추문, 목회 세습제도, 무속과 신비주의에 물들어가서 교회, 타종교와의 연합을 빌미로 종교다원주의를 공공연하게 정당화하는 일, 광신주의와 은사주의, 기독교 연합체의 불미스러운 일, 거기에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문 등으로 인해 교세가 계속 줄어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단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거나, 관망자의 자세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왜 이런 일들이 지구촌 곳곳마다 일어나는지의 원인을 성경적 관점에서 발견하며, 이 시대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아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 주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시기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계속 있을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겠고, 그리고 큰 환란이 있을 것과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마 20:3-12). 둘째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이곳저곳에서 구름떼처럼 일어나야 한다.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과 자기 이익 추구에만 열중하는 영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가진 자들의 횡포와 더 가지려는 소유의 집착을 버리고 공동의 이익,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셋째는, 역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주님께서 부여하신 이 땅에서의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올 한해도 다사다난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살아왔다. 더 중요한 것은, 새해를 주시는 이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 귀한 직분을 주시는 이유, 삶을 축복해 주시는 이유를 바로 깨닫고 새해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도 없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어야 하겠다.

특히 미국과 한국, 세계 열방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다스림에 순복하며 믿는 자들이 열방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소망을 가슴에 안고 무릎꿇어 기도한다.

돈이 주는 행복감, 한계 있다!

WSJ, 연구결과 바탕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고 믿는 이들 위한 조언 보도

지난 몇 년 동안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새로운 연구가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소득과 행복의 연관성을 조사했고 심리학자들은 돈이 어떻게 개인의 동기를 유발하는지 연구했다. 얼핏 보기에 연구결과는 뻔해 보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먹고 살기 힘든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훨씬 더 놀랍고도 유용한 정보가 나온다.

한마디로 돈 그 자체는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게 상기 연구가 시사하는 바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다. 일례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평평 쓸 때보다 거저로 남에게 줄 때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 자기 자신에게 쓸 때도 물건을 구매하기(소유)보다 무언가를 하는 편(경험)이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준다.

이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현명하게 쓰고 행복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Can Money Buy You Happiness? : It's True to Some Extent, But Chances Are You're not Getting the Most Bang for Your Buck).

라이언 호웰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교수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 때문에 신경이 쓰였다. 지난 10년간 나온 여러 연구에 따르면 물질보다 경험에 주는 행복감이 더 오래 지속된 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경험보다 물건구매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웰 교수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살펴보기로

주긴 해도 그런 감정은 금방 식어버린다. 이에 반해서 경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경험은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홀로 떨어져있는 섬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는 섬들이라는 느낌을 주고 정체성 확립에도 큰 역할을 한다.

물건을 더 산다고 더 행복해지지



속해지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니 계속 바뀌어야 시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자신이 가진 걸 한동안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행복한 돈(Happy Money)’의

돈의 패러독스는 더 가질수록 자신의 웰빙 수준이 높아지는 건 맞지만, 행복감은 남에게 줌으로써 더 커진다는 점이다.

이는 더 교수가 진행한 일련의 연

‘쾌락적응’현상으로 물질구매 통한 행복 찾기 힘들어

평가적 정서적 행복요소 확보엔 안전망 구축이 우선

했다. 올 초 출판된 논문에서 그는 경험은 지나가지만 물질은 남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물질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다. 이따금 멋진 휴가나 연주회에 아낌없이 돈을 쓰긴 해도 득과 실을 따지는 머릿속 계산기에 불이 들어오면 물질을 선택하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엔 물질보다 경험이 더 나은 가치를 제공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

토머스 길로비치 코넬대 심리학과 교수도 비슷한 결론을 얻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계산을 한다. 가진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딘가를 가거나 무언가를 가지거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어딘가를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순식간에 끝나 버린다. 하지만 무언가를 사면 그건 영원히 내 것이 된다. 사실에 입각하면 맞는 말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처음의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hedonic adaptation)’이라 부르는 이런 현상 때문에 물질 구매를 통해 행복을 사기가 힘든 것이다. 새 집이나 근사한 차는 순간적인 흥분과 즐거움을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물건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소냐 류보미르스키 UC리버사이드 심리학과 교수는 “인간은 달라지는 환경, 특히 긍정적인 변화에 놀라우리만치 적응을 잘한다”고 설명한다. “월급이 오르면 만족감을 느끼지만 곧 기대치도 올라간다. 부자 동네에 새 집을 샀다면 이웃들도 예전보다 다들 잘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바라는 것도 이전보다 더 많아진다. 쾌락의 쳇바퀴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걸 막거나 더디게 만드는 건 매우 어렵다.”

한 가지 방법은 의식적으로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쾌락 적응도 결국 가진 것을 당연시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진 것의 가치를 상기시키면 쾌락 적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기질인 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란 쉽지 않다. 매일 따로 시간을 내 자신이 가진 것, 누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거나 감사 일기를 쓰거나 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되 이런 방법 역시 익

저자인 엘리자베스 던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는 최근 초콜릿 실험을 진행했다. 피실험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눠 초콜릿이 잔뜩 든 봉투를 주고 집으로 돌려보낸 뒤 첫 번째 집단에는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먹으라, 두 번째 집단에는 하나도 먹지 마라, 세 번째 집단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먹으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집단에 비해 먹는 걸 금지 당했던 두 번째 집단이 나중에 초콜릿을 먹으며 느끼는 만족감이 훨씬 컸다. “일시적으로 무언가를 포기할 경우 그걸 즐길 수 있는 역력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구에서 나온 결과다. 던 교수는 캠퍼스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일부에겐 그들 자신을 위해 쓰라고, 일부에겐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했는데 후자 쪽이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

이후 다른 나라들에서도 같은 실험을 진행했으며, 범위를 확대해 교수가 준 돈이 아닌 자기 돈을 남에게 주었을 때도 같은 행복감을 느끼는지도 살펴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조차 자기가 쓰지 않고 남에게 주었을 때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강의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Church Music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단 몇분간 확인 못해도 손이 덜덜 그러면 당신은 스마트폰 중독자다”

WSJ,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디지털 디톡스’ 보조제 소개

연말은 1년 중 가장 설레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데 온갖 송년회와 가족 모임이 또 다른 사회적 관습을 밀어내고 있다. 바로 소셜미디어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단 몇 분간 확인 못해도 손이 덜덜 떨리면서 초조한가?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히 스마트폰 중독이다!

‘디지털 디톡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피로를 느낀다면, 일본 작가인 요네다 토모히코(41)가 추천하는 “디지털 디톡스”로 회복이 돼야 한다.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란 스마트폰 기기들과 잠시라도 멀어짐으로써 정신적 여유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을 뜻하는 신조어로, 토모히코는 지난해 가을 한 달 동안 소셜미디어와 거리를 두고 지냈고, 그 체험을 책(Digital Detox: If You Feel Tired of Social Networking Sites)으로 집필했다(Is it Time for a Digital Detox? : It's getting harder than ever to switch off from social media. But help is at hand, and ironically it's on your phone)

하루 12시간 SNS에 매달려있었다는 그는 “소셜미디어에 빠져 허우적대는 느낌이었고 중독된 상태였다”고 고백했다. 소셜미디어로부터 해방된 계



기는 우연히 찾아왔다. 그는 열흘 동안 몸이 아픈 나머지 평소보다 자주 SNS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는 이와 그렇게 된 것, 한 달 동안 ‘소셜미디어 디톡스’를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도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은 이메일을 확인했다.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견딜만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인 1995년 시절 라이프스타일로 돌아가자, 10년 넘게 소홀했던 일들에 다시 신경을 쏟을 수 있었다. “명상과 등산을 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에 집중했다.”

그는 친구들, 자연과 다시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계’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됐다. 그 교훈이란 기술과 더 잘 소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사람들은 쉽게 분별력을 잃을 수 있다. 디지털 디톡스를 하기 전에 소셜미디어가 나를 지배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는 내가 소셜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사람이 요네다 토모히코 한 명은 아니다.

올해 초 딜로이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세에서 24

세 사이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53회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이 횟수가 심지어 더 높았다.

남 얘기 같지가 않은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답 역시 스마트폰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체크(Checky)는 당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알려준다. 체크키는 아이폰스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런데 체크키는 끊임없이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급방 닳을 수 있다.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는 ‘소셜 네트워크 리미터(Social Network Limiter)’를 권하고 싶다. 소셜 네트워크 리미터는 ‘socialnetworklimiter.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 앱을 깔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제한된다. 사용 시간 한도를 초과하면 아예 접속이 차단되게 설정할 수도 있다.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고 싶다면 ‘콜드 터키(Cold Turkey)’를 써보자. 콜드 터키는 여러 브라우저에서 많은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 콜드 터키는 ‘getcoldturkey.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콜드 터키가 있으면 컴퓨터로 작업하는 동안 이 사이트, 저 사이트 기웃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이 모든 시도가 다 부질없다면 극단적인 방법이 하나 남아 있다. 스마트폰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다. 효과는 100% 보장한다.

(2면에서 계속)

또한 행복감은 기부하는 돈의 액수에 달려있지 않고 기부한 돈이 미칠 영향을 인식하는데 달려있다. 기부한 액수가 작아도 그것이 누군가의 삶에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위의 모든 연구결과에는 짚고 넘어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연구자들은 행복을 두 가지 요소로 분리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야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만이 가진 게 많아질수록 계속 향상되고 다른 하나는 어느 선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 번째 행복의 요소는 ‘평가적’(evaluative)이다. 튜모미르 스키는 이를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인식”이라고

정의한다.

또 다른 행복의 요소는 ‘정서적(affective)’이다. 기쁨, 애정, 평온 같은 긍정적 감정을 일마나 자주 경험하느냐다. “물론 행복한 사람들도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는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행복의 요소를 모두 갖게 되는 것이다.”

프린스턴대 연구진에 따르면 가구당 연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어간 후엔 행복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았다. 돈이 많지 않을 땐 기본적 니즈(needs)를 채워줄 여윌돈이 조금만 있어도 행복감이 오라 가지만, 돈이 많아지면 돈으로 행복을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 관한 연구 대부분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

긴 하지만, 연구자들은 버는 것 이상으로 쓰는 행위는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라는데 동의한다. 기본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

길로버치 교수는 자신의 연구가 물질보다 경험이 더 큰 행복감을 준다고 밝히고 있지만 필수적인 아이템들은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의 연구는 광범위한 소득 계층과 인구학적 집단에 적용되나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부채가 행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축과 경제적 안정은 이로운 영향을 가져온다고 한다.

던 교수는 “저축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채가 주는 부

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며 “따라서 행복지수의 측면에서 볼 때 저축보다 부채를 없애는 게 우선”이라고 말한다.

꿈에 그리던 휴가를 가기 위해 가진 돈을 전부 탕진하기 전에 기본적 니즈를 해결하고 빚을 갚고 뜻하지 않은 힘든 시기에 대처할 돈을 모아놓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호웰 교수는 “사실 재정설계사들이 하는 말이 맞다”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단한 경험을 하겠다고 빚을 진다면 그 경험을 통해 아무리 큰 행복감을 느꼈다 해도 신용카드 결제정구서가 날아오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16편 : 그러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시편 116편에서는 성령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끊임없는 은혜로 삽니다. 또 천국에 가셔도 끊임없는 성령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심장이 밤낮으로 뿜어 혈액을 살듯이, 성령님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성령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심장이 멈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심장이요 영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로 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환난과 슬픔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환난과 슬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왜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 환난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점점 빠집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이끄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향할 때 태양의 빛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2절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평생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평생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기쁠 때에도,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기도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할지라도, 도우시는 성령님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이 감하여지지 않고 풍성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힘이 없으며, 피곤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항상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파장이 생겨 온 호수가 그 파장을 느낍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도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의 파장으로 가득 찹니다. 저 끝까지 잔잔한 파장이 점점 퍼집니다. 성령님의 평강, 평안함,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물결처럼 번져갑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 밑에는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습니까? 수면만 흔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 전체를 흔들어 주듯이, 성령이 진원지 되어서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은혜, 생명, 평강, 기쁨, 사랑, 생동감이 우리의 심령에 항상 파장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잔잔한 기쁨을, 혹은 산보라도 더 큰 기쁨을 일으킵니다. 또 때로는 조용한 찬양이 일어나는가 하면, 산을 덮을 만한 찬양이 솟아나면서 성령의 은혜가 다양하게 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며, 복 받은 사람입니다.

12절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도 주고 계시는 모든 은혜를 더 알고 누리며 삽시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멈추지 않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는 짙은 구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성령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고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봄학기 수업 안내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모든 인생은 미생입니다

인기 연재만화를 TV 드라마로 옮긴 미생(未生)이라는 한국의 주

말 연속극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

포기한 주인공 장그레가 검정고시 고졸 학력으로 어떤 종합상사에 2년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동료들과 나누는 우애와 갈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말단 사원들은 드라마 속의 신입사원들을 보며, 함께 분통을 터트리고 함께 복수하고 함께 속 시원해 할 것 같습니다. 아내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직장생활을 엿보며, 승진하지 못한다고 구박만 했던 남편을 가여워할 것 같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남편들의 '법벌이의 엄숙함'을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장이나 과장이 아니라, 겨우 말단 계약직에 목숨을 걸고 정사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들, 남들이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화려하기는커녕 하찮게 살아가는 변두리 인생 같아 보이지만, 모든 인생은 나름대로 모두 소중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좌절이 있는 만큼 의미가 있고, 아픔이 있는 만큼 살 가치가 있는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인생을 바둑에 비유할 수 있지만, 한편의 바둑과 인생은 사뭇 다른 면도 많습니다. 바둑은 실패해도 판을 거두고 다시 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쉽게 둘 수 있지요. 그러나 인생은 거두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한판 승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어야 하지만, 다시 둘 수는 없습니다.

바둑은 누가 더 넓은 집을 짓는

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나의 돌들이 판 위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독립된 두 집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완생(完生)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돌들을 미생이라고 부릅니다.

바둑판 위에 돌들은 완생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모두 미생입니다. 완생을 위해 노력하지만 여전히 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만 완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봅니다. 완생을 하기 위해, 자신이 살아남을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시기하고 비웃기도 하며, 짓밟고 올라서기도 하고 함께 아파하기도 하며,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서로위서 술을 퍼마시고 분노를 폭발하기도 하는 인생들, 모두 하나 하나 너무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합니다. 미생들이 완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요14:6).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푸 / 른 / 초 / 장

황영진 목사

(뉴욕 선한목자교회)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 되면 공통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아쉬움과 후회, 변명과 핑계, 낙심과 좌절 등의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며 앞으로 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명백하고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지난 과거의 일은 잊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궂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은 뒤에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성공하려면 과거를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앞을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면 결국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무

엇입니까?

첫째, 금년 한해의 실수와 실패는 잊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과 총애를 받은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베드로도 자신에게 위협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애 중에 가장 치욕적인 실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디베라 바다에서 지친 모습으로 고기를 낚던 베드로에게 찾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 과거의 엄청난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의 마음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궂대를 향하여 전진합시다

(빌립보서 3:12-14)

예수님께서서는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을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기억조차 일으키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해를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과거의 실패와 실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만 이렇게 물으십시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면 많은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처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치유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쓴뿌리가 되어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안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할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욱 성숙

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도 수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통과 위협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 궂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자랑도 영광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지난 날 자기가 받은 영광을 앞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위해 계속 달려 나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스위스의 한 공동묘지에 위대한 등산가들의 묘비가 여러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짧은 글귀가 써여 있는데 “이 사람은 등산하다 죽었다” 그곳에 묻힌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은 산의 정상을 향해 도전하다 죽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다 죽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오직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늦게 부름 받아 20년 목회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선교사역의 길을 떠나며 가난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복음 전하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부름의 상 궂대를 향하여 달려 나갔던 주님의 종으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훗날에 묘비에 어떤 글이 새겨지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궂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으로 받을 위로와 상급을 위해 다 버린 것입니다.

셋째, 사명과 궂대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 과거의 실수와 실패, 고통과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회”

“자유롭고 편해야” 21.2% “예배가 제일 중요” 19.1%

미래세대를 향한 전도 방향과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목회연구소(소장 최동규 교수)는 22일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에서 제1회 서산현대목회포럼을 열어 한국교회의 미래세대 전도·목회 방향을 모색했다.

◇10명 중 8명 “과거 교회출석 경험”=연구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지역의 13~33세 남녀 1851명을 대상으로 생활방식, 교회에 대한 인식, 인생·종교·교회관 등에 대해 1대 1 면접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 중 82.7%는 ‘과거 교회출석 경험 유무’에 대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53.1%만 ‘선호한다’고 답했고, 31.6%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전도 받은 경험 유무’에 있어서는 ‘있다’가 36.8%였고, ‘없다’가 62.7%였다. ‘전도 받았던 종교’는 개신교(76.2%)가 가장 많았고, 불교(9.3%)와 기타 종교(10.5%)가 뒤를 이었다.

‘바람직한 교회상’에 대해서는 다

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교회는 자유롭고 편안해야 한다’(21.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19.1%) ‘친교·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11.1%) ‘전도·선교에 힘써야 한다’(10.6%) 등이었다.

‘현재 교회 이미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혼재돼 있었다. ‘구제·봉사활동을 잘한다’(23.0%)고 응답한 이가 가장 많았고, ‘진리 추구보다 교세확장에 관심을 둔다’(17.2%)가 두 번째로 많

았다. ‘사회적인 영향력 증가’(11.4%) ‘헌금 강요가 지나치다’(9.3%)는 답변도 있었다.

◇“전도대상 세분화하고, 전인(全人)목회 구현해야”=전석재 한국선교신학회 회장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전도 방향과 전략(표 참조)에 대해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략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중·고생은 입시·공부, 대학생은

진로나 취업, 직장인은 결혼과 직장 생활에 대해 관심이 높다”면서 “이들 그룹별로 각각의 이슈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동규 현대목회연구소 소장은 “(미래세대에 대한) 지식위주 교육을 전인교육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영적·지적·품성적 차원의 커리큘럼을 지닌 균형적 목회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룩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

정결을 넘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

레위기 속에 감춰진 값진 보화, 거룩의 재발견!

이 시대 탁월한 복음의 스토리텔러 소강석 목사가 들려주는

철저한 레위기 본문의 분석과 견고한 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

감동의 거룩 시네마!

거룩의 향기는 제단으로부터 시작한다!



259면 / 11,000원

거룩의 재발견

소강석 지음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꼭 한번은 읽어야 할

완전한, 참 거룩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필독서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예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션 루터 킹 퍼레이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상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킴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사탄교의 활약과 정체-사탄교, 크리스마스에 도전(대적)하다!하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최고 선물이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들이 각 교회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들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도시들안에는 “War on Christmas 크리스마스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런 모토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모든 가치관, 행사들을 방해하라!” 이 모토는 바로 사탄교와 반기독교단체들의 크리스마스를

Management Services에게 사탄교도 크리스마스 전시회에 참여하겠다는 제출서를 냈는데, 물론 그 전시회는 평범한 성탄절 전시가 아니라 사탄교 방식의 반크리스마스적인 메시지와 장식을 의미합니다. 도시로부터 허락받는 것이 어려울 것을 미리 예상한 사탄교는 동성애자들이 사용한 전략중 하나인 인권주의와 Equal Right, 차별금지 법안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만들어 주면 도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해서, 결국은 도시행사 기획 단체

“Common Core Standard”를 통해 이슬람화 되고 있는 공립학교들의 심각성 북 캐롤라이나에 있는 Farmville Central 고등학교 영어수업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어수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단어대신 계속 이어지는 이슬람 단어공부와 예언자 무하마드가 받은 지시에 대한 공부, 이슬람의 믿음 등을 배워야 했던 졸업반 여학생이 자기가 받은 수업내용의 일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엄마에게 보내, 문제가 전역 학부모들과 저희 기독교단체에 알

생들에게 유익하기보다는 훨씬 해로운 교육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mmon Core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면 속히 자녀들을 학교에서 빼내셔서 성경적 가치관이 확실한 기독교 학교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Tvnext에서는 되도록이면 자녀들을 공립학교에서 빼어내 홈스쿨링이나 성경적인 기독교 학교로 보낼 것을 강추합니다.

미국은 지금 사방팔방에서 영적 공격을 받고 있으며, 매일 매일이 치열한 영적 가치관 전쟁입니다.

“크리스마스 관련된 가치관과 행사를 방해하라” 모토 세워

Common Core STD 교재사용 학교 경계...이슬람 교육까지

없고도 변질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작전입니다.

뉴욕에 헤드쿼터(Headquarter)가 있는 사탄교는 이번에 오클라호마 주와 서부 플로리다 주에 있는 공립학교들을 공격한 것에 연이어, 이번에는 플로리다 주의 캐피털 중심에 있는 공공 대형 원형건물 안에, 성탄메시지와 예수님 탄생동상들이 전시된 곳 바로 그 옆에, 천사들이 지옥 불에 떨어지는 고통화를 들여놓는 것과 사탄교의 사탄적인 성경구절들 인용, 그리고 “Happy Holidays from the Satanic Temple”이라고까지 적힌 안티 크리스마스 물건과 문구들을 전시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사탄교의 대변인인 Lucien Greaves는 “미국처럼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국가에서 사탄교를 포함하여 어떤 종교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특별히 “사탄교와 같이 다른 종교가 보는 관점의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크리스마스 때 꼭 함께 세상에 보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탄교는 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이라는 초당파 법적단체를 통해서 도시의 행사들을 기획하는 Florida’s Department of

로부터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사탄교의 반-크리스마스 프로젝트들을 돕고 있는 단체들은?

늘 반기독교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FFRF)이라는 무신론심에 있는 공공 대형 원형건물 안에, 성탄메시지와 예수님 탄생동상들이 전시된 곳 바로 그 옆에, 천사들이 지옥 불에 떨어지는 고통화를 들여놓는 것과 사탄교의 사탄적인 성경구절들 인용, 그리고 “Happy Holidays from the Satanic Temple”이라고까지 적힌 안티 크리스마스 물건과 문구들을 전시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탄교의 법적대변인인 AUSCS이라는 이름만 봐도 얼마나 미국의 역사와 미국시민들을 혼돈시키려고 하는 단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만 이 법정단체의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미시건 주에도 이번에 같은 크리스마스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사탄교는 미시건에서는 십자가, 빨간 뱀 등을 장식으로 사용하고, 그 안에는 이런 글을 올리기로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가 아니라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이다”라고요. 이 글의 근본은 곧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려지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학교에 달려가서 왜 학생들이 영어수업시간에 이슬람을 배워야 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을 알리는 게 수업의 내용이었다고만 할뿐, 자신들은 미국 Common Core STD에 맞춰 교육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학부모들이 찾아낸 사실은 이 학교에서는 그동안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오바마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강력히 밀고 있는 Common Core STD에 포함된 친이슬람 내용에 의거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학교당대로 정부에서 하라고 한대로 학교측에서는 가르친 것뿐이지요.

Common Core STD는 미국 여러 주들(주로 중부쪽)에서는 금지해버린 교육 자료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Common Core STD를 직역하면, “기본, 기초 공부”라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말로 할 수 없이 최악 중 최악인 교육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교육은 거의 프로노 수준임이 계속 학생들에 의해 확증되고 있고, 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친이슬람 교육까지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학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Common Core STD를 통해서 친 동성애, 무분별한 낙태, 친이슬람, 사탄교에 대한 교육까지 받게 된다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미국은 지금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이 미국 안에서 만행되고 있는 반기독교 운동들에 맞서지 않는다면, 누가 미국을 다시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국가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사탄교나 반기독교 단체들은 딱 한가지의 공동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기초 삼아 건립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뿌리 채 없애고, 하나님을 미국에서 밀어내고자 하는 반기독교 정치인들/사회/문화인들의 합동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미국전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과 긴급뉴스들은 Facebook에 가서서 Tvnext.org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slpc0316@gmail.com

Q: 유대교와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지요?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닌지요? WCC 운동은 어떤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성에서 청년부 Joseph

A: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디모데전서는 2:4-5절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구원을 얻으려면 2가지 진리를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우주적인 초청은 두 가지 기초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유일신 사상 둘째,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중

예수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보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요14:7). 유대교와 이슬람도 철저히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알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나 이슬람은 올바른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볼 때 기독교는 사실 배타적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며 구원은 그 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짐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성경은 현대 코드가 아니라 고대 코드라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이론을 부인하며 다른 종교에 대해 관용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유일성과 궁극성을 부인합니다. 이 입장의 대표적인 대변자는 존 히크(John Hick)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은 종교생활의 흐름 안에서 또 그 전통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교의 전통을 통하여, 힌두교도들은 힌두교의 전통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요즘 WCC 운동이 다원주의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며 카톨릭, 사마니즘, 불교의 중들도 참여하여 서로 연합해 하나가 되자는 운동입니다. 1983년 WCC 6차 회의에서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음을 말했고 1991년 7차 총회에서는 무속신앙에 접목하여 종교 혼합주의로 나아갔으며, 1998년 8차 총회에서는 일부다처제를 주장하고 묵인했습니다. 2006년 9차 총회에서는 동성애 성직자들을 지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느지 모르는지 한국의 여러 교단과 유명목사들은 교회가 그렇게 반대하는 데도 한국에서열린 WCC 총회와 운동을 주도하며 그 운동에 타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WCC 운동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사탄의 운동입니다. 목회자들도 올바르게 분별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1월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향우목사)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12일 ~ 15일 우리들교회(김호겸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월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3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월

9일 ~ 11일 명수대교회(김강덕목사)
15일 주포교회(최성은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

7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아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월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종진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월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중앙교회(이충일목사)
17일 양문교회(정영교목사)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차유회)
21일 ~ 23일 오병이어교회(김형재목사)
24일 블레스 샘터교회(고영수목사)
25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채플
28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0월

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승현교회(김학기목사)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미주 갈멜산기도원 매일 기도성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갈멜산금식기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031)472-7212 www.galmelsan.or.kr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213) 382-1450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62)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영역주권의 선포 전후

자유대학교 개교 예배장소는 일찍이 카이퍼가 묵회하던 암스테르담 중앙교회(화란 식으로 Nieuw Kerk)에서 열렸다. 왕궁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이 대 교회에서 당대의 정치, 종교, 교육, 문화 등 최고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카이퍼는 우렁차고 당당하게 취임연설을 했다. 그 핵심은 영역주권의 선포였다. 카이퍼는 패활하고 역동적인 말로 서문과 인사를 한 후에 영역주권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즉 “자로 하여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영역주권’이란 한 개의 개념을 결합해서 그 대답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영역주권’을 우리 대학의 국가적 의미와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와 우리 대학의 개척교회의 성격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지적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카이퍼의 연설문에서 첫째는 “우리 학교의 국가적 의미”, 둘째는 “학구적 갈망”, 셋째는 “개혁교회 교리를 따름”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했다.

우선 카이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언급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주권을 가지

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모두를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8:37에 “빌라도가 이르

카이퍼는 이러한 주권 곧 통치권이 이 땅위에 행사될 때 분산되어 각 영역에 주권을 나누어주었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이것을 ‘톱니바퀴’나 ‘별자리’처럼 일정한 원칙

골복합니다”라고 했다.

카이퍼의 메시지의 요점은 모든 영역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도 주권과 권력의 한계를 정해야 하는데, 다른 영역을 과도히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카이퍼는 잠언 29:4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며”란 말씀을 중심으로, 국가의 통치권은 개인을 보호해주고 가시적인 영역에서 상호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는 역할이다. 국가가 모든 전권을 다 가진 것처럼 명령하고 강제로 통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국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금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앉아 계십니다”라고 했다.

특히 카이퍼는 영역주권이란 창조질서 안에 있으며 인간의 생명의 구조 속에 있으며 국가의 통치권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일어난 국가의 통치권은 영역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다른 영역을 영원한 대적으로 생각했다.

카이퍼 박사는 그의 영역주권에 대한 연설 두 번째로 학문의 분야에서의 영역주권을 말하고 있다. 국가가 권력을 갖고 그 국가 이데올로기를 끌고 가려면 순수한 학문에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교육 특히 칼빈

찰력을 깊게 해주며 판단을 명백하게 해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신성하게 해주며, 권력자가 우리 인간 생활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에 반대하는 힘을 길러 줍니다”고 했다.

그리고 카이퍼는 모든 국가 권력은 모든 자유를 의심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다. 다양한 생활 영역이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가는 영역 중에도 영역이며 국가는 인간의 생활의 전 범위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국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국가가 학문의 영역에 대해서 이래라 저

영역주권은 창조질서, 인간 생명구조, 국가통치권 전부터 존재

3가지 목표제시: ①자유대학교의 국가적 의미 ②학구적 갈망 ③개혁교회 교리 따름

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나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라고 했다.

또 마태복음 28:18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로 마서 14:11에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등은 메시아이신 예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메시아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과 권도가 있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영역주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도덕계, 과학계, 사업계, 예술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갖고 있는 도덕성과 가정과 사회생활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름대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자연에도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법칙으로 돌아가는데, 개인, 가정, 과학, 사회 및 종교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들 모두가 나름대로의 법에 순종하고 각각 그들의 우두머리에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그 톱니바퀴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잘 굴러가도록 해야지 자유를 속박하거나 생활을 구속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그의 연설 중간에 힘주어 말하기를 “나는 영역주권에 대한 이와 같은 신조를 한 개의 학설이 아니고, 삶에 대한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권자로 다스리시는 것과 하나님의 막강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

주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교육을 위해서 확실적인 유물주의 교육관과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의 자유, 가족의 자유, 교수법의 자유, 영적인 단체의 자유가 똑같이 위협을 받기 때문이란 것이다.

카이퍼는 말하기를 “여러분께서도 영역주권이 우리 대학의 연구과제가 되기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도 이것이 실질적인 면을 고려해서 이것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이고 무미건조한 전통적인 교리를 고집하지 않게 하는 반면에, 원칙을 확고하게 해주며 통

래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문은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름대로의 생전 영역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대학을 위해서 자발적인 헌금과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카이퍼의 이 연설은 국가 권력의 상징인 왕궁과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행했음으로 이는 국가와 교회와 교육, 문화 전 분야에 대한 위대한 도전이며 새로운 지평을 제시 했다.

(다음호에 계속)

가정사역 칼럼



황혼 이혼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한 해의 끝자락이 가까우면 늘 세월이 참 빠르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흔히들 40대에는 세월이 40마일로 달리고, 50대에는 50마일로 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얼마나 빨리 달린다고 느끼실지 짐작이 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황혼의 나이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그분들이 이혼을 생각하기까지 그 이면에는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불편한 부부관계를 그동안 아이들 눈치 보느라고 참고 지냈다가 주로 아내들이 더 이상 남편들과 연결된 끈이 사라진 현실에서 독립 선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이혼 사유들은 다양한 편인데, 흔히들 성격 차이나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인 문제, 기타 배우자 부정이나 정신적, 육체적 학대 등이 있다. 이혼이 단순히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그 원인들은 다양하고 복잡

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동안 이혼을 못하도록 억눌러왔던 전통적 장애물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짐으로써 더욱 이혼이 쉬워진 현실로 다가온다. 그러한 전통적 장애물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종교적 교리와 규범들: 현대 사회의 다원화된 모습이 그러한 기준들을 완회시켰다.
2. 이혼을 반대하는 외부적 압력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 도

시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가운데, 혈족 단위의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그러한 압력이 점차로 줄어들었다.

3. 서약과 복종을 강조하는 사회 규범들: 전통적인 유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약화 되었다.특히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가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복종의 관계에 있었던 부부관계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다.

4. 이혼법의 완화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혼의 현실과 함께 사회적 안전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므로 인해 이혼의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

5. 남녀가 점차적으로 함께 일하고 사회화됨: 이에 따라 현재의 배우자 외의 선택 가능성이 확대되어졌다.

6. 사회경제적 변화: 현대생활에서는 아내들이 경제적으로 남편들에게 덜 의존적이 되기도 하고,

남편들은 감정적으로 아내에게 덜 의존하도록 되었다.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된 현실과, 미디어 내지는 사이버 공간의 활용 등으로 인해 배우자의 대체물이 많아진 것도 이혼을 조장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7. 의외에도 아주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대화로 풀지 않을 경우, 그것이 오래 묵어서 돌이키기 어려운 거리감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 무심하게 서로 평행선을 향해 살아갈 경우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들 말씀하신다.

그 외에도 직/간접적인, 의식/무의식적인,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 원인들을 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주의의 팽배,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에 대한 의식의 부족, 헌신의 부족들을 들 수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그러나 이혼은 문제의 해결책이라기보다 더 복잡한 문제의 시작일 뿐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언약을 파기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막히게 만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셈이다. 앞으로 3-4대에까지 걸쳐 이혼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자녀들 세대가 고통의 열매를 먹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전문가를 통한 부부상담을 받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한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담임목사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가미노회에 소속된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아래와같이 청빙코자 합니다

1) 자 격

1.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교단소속 이거나 또는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본교단의전임승락이가능하신분)
2. 대학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M.Div이상)
3. 목사안수후 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4.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는데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 및 가족 소개서 (사모포함)
2. 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목회계획서 (성장과정/ 목회비전/교회운영계획-A4 용지 4매이내)
4. 목사재직증명서 및 총회목사 안수증명서 (각 1통)
5. 추천서 2매 (연락처기재)
6. 설교 TAPE 또는 CD 2개

3) 제출기한 2015년 1월15일 (우편소인일자기준)

4) 제출처

1. E-mail : philadelphia9135@gmail.com
2. 우편 : 9135 132st , Surrey BC Canada V3V 5P6
The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604-584-5780)

5) 기 타

1. 제출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분은 개별통지 합니다
2. 개별통보된분의경우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 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26)

배아줄기세포 연구

‘줄기세포’라는 것을 통해 불치병들이 치료되고 전 세계의 부를 한국으로 모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물가품이 된 2005년 황우석 교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의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줄기세포를 어떻게 보관하든 하는지에 대한 크리스천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줄기세포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다.

줄기세포를 영어로는 stem cell이라고 하는데 간간이 되는 세포란 뜻이다. 즉 어떤 생체계의 조직이나 기관을 이루는 군이 되는 세포란 의미다.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며칠 혹은 몇 개월 살다가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서 특별한 세포가 있어서 죽어가고 계속 같은 종류의 세포를 만들

세포를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데는 아무 윤리적인 문제도 없다. 마치 헌혈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기술이며 기부 행위로 칭찬받을 일이다.

다른 한 종류의 줄기세포는

과정의 핵심은 수정란을 만들고 이 수정란이 성장하고 있는 초기 단계인 배아 상태에서 그 자라나고 있는 생명체를 해체하여 그 속에 들어 있는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이다. 만약 이 배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순간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유전정보를 가진 난자와 역시 유일한 정보를 가진 정자가 만나 유일한 정보를 가진 수정란이 된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매일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모양을 갖추고 성장하여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사람은 수정란에서 나온다. 배아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한국에서는 태어났면 한 살로 인정하는데 수정란에서부터 계산하는 것이다. 더욱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 형상이 이루어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시139:16a). 아직 사람의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이다. 과학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수정란부터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닐까?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기술적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세상을 바꾸는 도전 '배려'

지난해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데 필요로 가치로 가장 많은 사람이 꼽은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였다. 청소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도 무려 55.4%가 '배려'라고 응답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배려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학교폭력, 왕따 등의 원인을 배려가 부족한 데서 찾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 사회가 배려에 목말라 하는 까닭은 과도한 경쟁 속에서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이다. 곧 공감인지능력의 부재 탓이다. 공감인지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 즉 고통과 기쁨,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으로 동정이 아닌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정서적 충격을 감소시켜 주는 능력(이영숙, 2005)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한 입시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타인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약해졌다. 친구는 잘해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아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주변들과 선생님께 어떤 상처를 줄지 예상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공감인지능력은 배려를 통해 배운다. 배려는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인들로부터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 우리 주변에도 배려의 성품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방의 필요를 미리 알고 있다가 소리 없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적절한 한 한마디로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은 타인의 삶에 잔잔한 변화를 일으키고 행복함 인간관계를 만드는 위대력이 된다.

기업에서도 CEO는 물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사람들에게 배려의 성품이 필요하다고 한다. '서번트 리더십'이 그중 하나이다. 조직원을 잘 배려하는 리더가 기업의 목표 달성에 꼭 적합하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물론 조직원을 또한 배려하는 리더를 더 잘 따른다. 그러므로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배려의 성품을 리더의 중요한 자질인 셈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배려의 성품을 가르쳐야 하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배려의 성품을 가진 자녀로 키우려면 무엇보다 다음 3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 부모가 배려의 성공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교육 심리학자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은, 사람에게서는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능력이 있어서 부모와 교사는 물론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행동을 쉽게 모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내배려의 부정적인 행동을 모방하기 전에 부모의 배려가 먼저 아이들에게 각인되도록 모델이 되어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 할 줄 아는 공감인지능력을 훈련해야 한다. 이기적인 아이들은 모든 상황을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므로 상대방의 행편을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공감인지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오늘 아빠 기분이 어떠신 것 같니?”, “그 친구는 왜 그렇게 화가 난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도록 훈련시킨다.

셋째, 배려심 없는 이기적인 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녀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을 때 ‘좀 그만 나아지겠지’하고 넘어가거나, 남을 배려하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기적인 태도가 지속되면 대사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 속담에 '사람들은 친절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나눠주고 배려해야 서로 소통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행복한 인간관계, 행복한 세상은 돈이나 그럴듯한 언변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배려하는 성품이 그 해답이다. 배려의 성품을 세상에 바꾸는 도전 정신이다.

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세포를 만들어내 그 기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세포를 줄기세포(stem cell)라고 부른다.

줄기세포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다 자란 성체에서 발견되는 줄기세포(adult stem cell)다. 최근에는 아기가 태어날 때 아이의 장래 필요를 위해 제대혈을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혈은 태반과 탯줄에 있는 피를 말한다. 여기에는 줄기세포도 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된다. 물론 성체줄기세포는 비율이 다를 뿐 우리 몸 어느 조직에나 다 존재한다. 만약 각 조직에 줄기세포가 없다면 생체계의 오래 생존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생체줄기세포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골수 이식이다. 골수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있어 계속 혈액 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백혈병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골수의 줄기세포들을 다 제거하고 건강한 다른 사람의 골수(줄기세포)를 이식도가 심는 것이다. 이 줄기세포는 이미 생명체가 완성된 사람에게서 뽑아낸 것이므로 성체 줄기세포다. 그러므로 성체줄기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다. 배아라 함은 수정란에서 시작해서 8주까지의 상태에 있는 생명체를 말하고 이 이후는 태아(fetus)라고 구별해서 부른다. 따라서 배아줄기세포라 함은 수정란에서 성체로 자라가고 있는 초기 과정 즉 배아 상태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다. 배아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에 비해 훨씬 다양한 세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만능세포(pluripotent cell)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배아줄기세포만 있으면 사람의 어느 조직이든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아줄기세포의 문제는 무엇인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문제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 이

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게 되면 사람이 태어나게 된다. 그런데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생명체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원히 세포로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가장 큰 문제는 수정란에서 시작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태가 생명의가 아닌가의 문제다. 보이는 것만 본다면 배아는 태아와 달리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수정란에서 시작해서 공 모양의 배반포 상태에서 분명히 사람의 모양을 찾아낼 수는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배아를 희생시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배아는 정말로 사람이 아닐까?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일까?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수많은
과정들 중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인 문제들과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배아 세포는 환우적 교수 사건에서 보았듯이 수많은 난자를 공급해야 하는 심각한 윤리적, 경제적,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2012년에는 일반 세포를 줄기세포로 전환하는 연구에 성공한 과학자들에게 노벨상이 주어지기도 했다. 일반 세포를 줄기세포로 직접 바꾸는 과정에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수정란 상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하여 기술적인 문제 혹은 윤리적인 문제 등 세속적인 관점보다 더 중요한 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성체줄기세포 연구와 달리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최초의 사람인 수정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자라고 있는 과정에서 그 생명체를 해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낙태와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창조자 하나님은 사람을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생명체들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세계로 뚫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세계로 뚫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뉴욕갠세마교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2:00 수요 성경강화: 오후 8:00 금요일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계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93-1977, Fax. (516)89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161-2810/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4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일(문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9-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tocn.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5:45(월-토) Website: nyip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ress,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12부예배: 오후 1:30 화요일 성경강화: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210-10 Horace Harding Express, Bayside NY 11364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창립자 성경강화: 오후 1:30 주일학교강화: 오후 12:30 주일학교강화: 오후 1: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plus.org Tel. (516)333-1757, 북가향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동사목사: 박준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제사찬양: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45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org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04				



목회서신

바른 성도의 자세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필자는 모태신앙인으로 한국에서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를 다녔었고, 미국이민 와서 하나님의 품령을 받고 늦게 목회자가 되어 개척교회까지 하게 되었다. 평신도와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자로서, 평신도의 입장에서 ‘바른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1.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하여 순종, 겸손, 감사, 섬김, 절제, 분별의 6가지 훈련을 받아야 한다.

2.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

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삶’,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해 빛진 자의 부담을 가지고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3. 바른 성도의 삶의 기준과 표준은 주일성수와 십일조에 있다.

4. 바른 성도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고전10:31, 빌1:20, 롬14:8)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5. 바른 성도의 삶이란 주님을 본

받는 삶인데, 파수군(겔3:17)과 추수군(마9:37-38)과 주님의 증인(행1:8)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마16:24)을 사는 것이다.

6.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장로나 설립교인이나 교회의 어떤 조직(교단, 교파)이 아니라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주인인 것을 알아야 한다(마16:18, 엡4:12, 5:23).

7. 바르고 참된 목사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8. 먼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사명에 맞는 목사와 교회를 찾아라.

9.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은혜를 받는다(살전2:13).

10. 목사와 바른 영적 관계를 통하여 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활기찬 믿음을 생활을 하라.

11. 어떠한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신본주의적 신앙).

12. 잘못된 일을 하여도 꾸짖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고 별로 칭찬 받을 만한 일이 아닌 데도 치켜세우고 높이고 칭찬해주는 주의 종보다, 잘못된 것을 보고 꾸짖고 책망하고 나무랄 줄 아는 주의 종을 가까이하라. 그만큼 기대와 관심과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13. 목사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힘쓰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힘쓰라. 칭찬을 자주 받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기

쉽고, 하늘에 상급이 없다.

14. 내 귀에 듣기 좋고 부담을 주지 않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듣기 거북하고 부담도 가고 마음에 아픈 곳을 찌르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라(행2:37). 거기에 은혜와 변화가 있다.

15. 목사나 사도나 철학자나 유명 인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영적 권위를 더 두어야 한다.

16. 목사가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나 변질된 복음으로 잘못된 교리나 이단사설을 가르칠 때는 영적 선한 싸움으로 강하게 대적해야 한다.

17.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 선과 악, 성령과 악령, 진리와 비진리, 의인과 악인,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한다(롬12:2,요일4:1).

18.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하며 믿음생활에서 늘 승리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19.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비판, 정죄하지 말라(고전12:21-27).

20.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를 낮추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므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요17:21-23, 엡4:4-6).

21. 은혜 받는 일이라면 내 고집, 자아, 자존심, 체면, 합리적인 사고방식, 주의, 주장, 이론을 다 내어 버리고 은혜 받고 보는 것이 상책이다.

21. 받은바 은혜, 은사, 능력에 감사하고 주신 사명을 따라 맡은 일에 충성하므로 상급 받는 믿음생활을 해야 한다(고전4:2, 딤후4:7-8, 계2:10).

22.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위선적으로 허례허식을 부리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삼상16:7, 엡3:20, 딤후3:5).

23.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자(마25:4, 계22:20).

“소외된 자 섬기고 교회연합 풍토 강화”

남가주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 새 회장에 엄규서 목사

남가주 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회장 김재중 목사) 총회가 지난 14일 월서크리스천교회(담임 엄규서 목사)에서 개최하고 수석 부회장인 엄규서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회장 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새해는 남가주 그리스도의연합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하는 뜻깊은 해”라며, “앞으로도 더욱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일과 모든 회원 교회가 서로 연대 협력하는 풍토를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2015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연합 제직수련회를 루손밸리에 소재한 사우스베이 한인교회 수양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신임회장단 명단이다.

△회장: 엄규서 목사(월서크리스찬교회) △제1부총회장: 안대진 목사(싸우스베이한인교회) △제2부총회장: 이성도 목사(나눔중앙교회) △총무: 류창열 목사(나눔동산교회) △서기: 최장식 목사(월서크리스찬교회) △회계: 김정환 목사(



엄규서 목사
실버레이한인교회).
(기사제공: 남가주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

새문침례교회-뉴욕새예루살렘교회 통합
백창건 목사-노기송 목사 공동사역

새문침례교회 (담임 백창건 목사)와 뉴욕새예루살렘교회 (담임 노기송 목사)가 통합됐다. 두 교회는 지난 21일 성탄주일부터 우함께 예배를 드렸다.



노기송 목사(왼쪽)와 백창건 목사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열린 뉴욕뉴저지 침례지방회 송년모임에서 백창건 목사가 공개발언을 통해 교회의 미래를 위해 두 교회가

함하게 됐다며 기도를 부탁함으로 알려졌다.

백창건 목사가 38년전 개척한 새문침례교회는 현재 우드사이드에 위치해 있으며 자체 교회건물을

갖고 있으며, 뉴욕새예루살렘교회는 16년 전 노기송 목사가 웨체스터 지역에 개척한 교회다. 미남침례회 소속 두 교회가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교회 이름을 찾고 있으며, 예배 장소는 우드사이드 소재 새문침례교회 예배당을 사용한다. 두 목사는 공동사역을 하게 되며, 차세대를 위한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새문침례교회는 노기송 목사가 1986년 집사 시절부터 섬기던 교회로 전도사로 3년간 사역한 교회다. 노기송 목사는 1994년 안수를 받고 1995년 새문침례교회를 떠났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된 셈.

백창건 목사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2-3년 공동사역을 통해 노기송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비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주로 노기송 목사가 모든 목회의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저는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라: 유원정 기자)

LA문화선교원 시전 ‘시와 찬미의 전당’ 송년예배



LA 문화선교원 ‘시전’ 2014 시와 찬미의 전당 송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LA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민미 시인)은 2014 ‘시와 찬미의 전당’ 송년예배를 20일 오전 10시30분 JJ그랜드호텔에서 가졌다. 정문기 간사의 사회로 시작된 송년예배는 방동석 목사가 기도했으며 이성희 선교사와 박정은 선교사가 찬양 인도 했다. 이어 윤일을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게임과 선물교환 등 흥겨운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2015년 1월 8일 중국선교를 위해 출국하는 이성희, 박정은 선교사를 위해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필라기독교방송 새 이사장에 박상의 장로
이사회 정기총회, 부이사장: 김혁기 장로

필라 기독교방송국(사장 전영현 목사)이 지난 22일 오전 10시 본사 사옥에서 이사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박상의 장로를 선임했다.

총회는 1부 예배 후 수입 지출 보고와 신년도 예산 편성을 통과, 그동안 어려웠던 운영을 개선 발전하고 있음을 공감하고 실무진에게 위로와 치하를 보냈다.

이날 수년간 수고했던 서장석 장로가 운영이사장직을 사임함으로

명에 이사장으로 추대키로 하고, 임원 구성을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운영이사장: 박상의 장로 △시장: 전영현 목사 △부이사장: 김혁기 장로 △상임고문: 안영균 목사 △명예 이사장: 임보현 장로, 서장석 장로 △운영이사회: 서기 오성환 집사, 감사 강승호 목사 △명예 이사: 오방환 목사, 신해군 장로 △운영이사: 서장석 장로, 민영선 목사, 이진상 장로, 백홍기 장로, 김혁기 장로, 장권일 집사 △기획실장

김한규 집사 △방송실장 전해영 사모 △사무장 이정금 장로 △미디어 담당 조준 전도사 △사진 선춘용 장로 △방송위원: 안방욱 사모, 이경림 사모, 서수진 사모, 안정혜 권사.

필라기독교방송은 18년 역사를 가진 주정부 정식 인가를 받은 방송으로 필라 교계와 동포들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수입 지출을 신문에 공개하고 있다.

동 방송국은 앞으로 개선과 발전을 위해 사명감 있는 운영과 후원 이사들을 영입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한다(연락처: 215-924-0691).

(기사제공: 필라기독교방송)



1966년부터 81년까지 한국에 파견된 미 평화봉사단 출신들로 구성된 한국의 친구들(Friends of Korea)이 한인가정상담소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한인가정상담소에 2천달러 전달
평화봉사단 출신 ‘한국의친구들’ 후원

1966년부터 81년까지 한국에 파견돼 영어교육, 한센병 및 결핵환자들을 돌보는 등의 봉사를 한 미 평화봉사단 출신들로 구성된 ‘한국의친구들’(Friends of Korea) 회원들이 한국에서 보여준 사랑을 LA한인사회로 확산시키고 있어 훈훈한 감동이 되고 있다.

17일 ‘한국의친구들’(회장 낸시 켈리) 소속 제임스 마이어, 맨 스트릭랜드, 메리 브로드는 한인가정상담소(KFAM)를 방문해 2천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11월 LA에서 열린 연례총회에서 ‘한국의친구들’이 LA 한인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 뒤 건강한 한인가정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한인가정상담소를 선정해 소정의 후원금을 전

달한 것.

제임스 마이어 재무담당자는 “LA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한인가정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가정

상담소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한국에서의 봉사와 사랑을 LA한인사회까지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60-80년대 한국 평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의 아내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미주 한인사회에 나누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의친구들’ 멤버들은 미주 한인사회와는 주로 워싱턴DC 지역을 중심으로 끈끈한 인연을 맺어왔으나 LA에서 열린 연례총회 계기로 LA 한인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카니정 소장은 “이번 후원금을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해 건강한 한인가정을 만들기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이야기가 있는 찬양음악회 “Hymn To Him”

이야기가 있는 찬양음악회 “Hymn To Him”이 지난 20일 맨해튼에 위치한 The DiMenna Center of Mary Flagler Cary Hall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 시작된 음악회 “Hymn To Him”은 찬송가로만 이루어진 찬양 음악회로, 찬송가에 실제로 얹힌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사연들을 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의 찬양 음악회다.

이번 음악회는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음악회가 아닌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젊고 유능한 크리스천 음악가들이 어떤 유익을 바라지 않고 온전한 찬양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을 모아 시작된 비영리 찬양 음악회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풍성한 음악을 들려준 이번 음악회는 ‘저 장미

꽃 위에 이슬’, ‘내 평생에 가는 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등 청중들의 귀에 익숙한 찬송곡 뿐만 아니라 ‘오 베들레헴 작은골’, ‘천사들의 노래’ 같은 성탄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로 흥미를 더하며 이태영 지휘자의 지휘 하에 소프라노 박정화, 메조소프라노 김효나, 테너 이성은, 피아노 홍현진, 강민영이 함께 화음을 맞추며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기사제공: Hymn To Him)



찬양음악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전도연합회 2014년 송년모임

뉴욕전도연합회(회장 허윤준 목사) 2014년 송년모임이 29일(월) 오후 6시 선한목자교회(박준열 목사 황영진 목사 시무)에서 열린다. 이번 모임은 선교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황영진 목사의 송별회를 겸한다.

▲문의: (718)637-1470

뉴욕나눔의집 한인노숙인 성탄절 만찬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주최하는 한인노숙인 성탄절 만찬이 오는 23일(화) 저녁 5시에 열린다. 이날 노숙인들이 겨울을 나는데 꼭 필요한 내의, 장갑, 모자, 양말 등 푸짐한 선물이 증정될 예정이다. 동 기관은 후원회 손길도 바라고 있다.

▲문의: (718)683-8884, 961-9191

뉴욕기독교방송 전속 선교합창단원 모집

뉴욕기독교방송(CBSN, 대표 문석진 목사)이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합창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교회음악을 사랑하는 세례교인 이상의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로 단원 입단신청서 1부(뉴욕기독교방송 홈페이지(http://cbsnewyork.net) 첨부파일 다운로드), 담임목사 또는 지휘자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2015년 1월 7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이메일(newyorktop@gmail.com)과 우편(163-07 Depot Rd. #B-2 Flushing, NY 11358)으로 가능하다. 오디션은 2015년 1월 11일(주), 오후 7시(장소 추후 개별통지), 응시곡은 지정곡 1곡 “오 신실하신 주”(새찬송가 393장/구 찬송가 447장), 자유곡 각 1곡씩이다.

▲문의: (646)915-6034, (347)538-1587



패밀리터치 감사만찬에서 정정숙 대표(왼쪽)가 대통령자원봉사상을 전달하고 있다.

패밀리터치, 자원봉사자 이사진 위해 감사만찬
자원봉사자 8명 대통령자원봉사상 수상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지난 15일 저녁, 뉴저지 사무실에서 자원 봉사자와 스템, 이사회 회원들을 위한 감사 만찬을 열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눔을 위로방문자로, 어린이 프로그램 교사, 사무행정 보조로 3,200시간을 헌신했다. 이날 이규재 전 이사장을 비롯한 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00-30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대통령 자원 봉사 상 (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을 받았다.

패밀리터치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시니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다 건강한 시니어가 간단한 상

담교육이수 후에 주변 너싱홈을 방문해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과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 봉사자들은 초등학교를 위한 튜터링(Tutoring), 또는 여름 캠프의 카운셀러(Counselor)로서 봉사하고 경험을 쌓는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들의 경우 음악, 미술, 태권도, 컴퓨터 등의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 또한 이뤄지고 있다.

패밀리터치는 매년 자원봉사자들과 이사회 회원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해 이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역대 회장 쌓아온 역사 잘 잇도록 최선”

제 43회기 뉴욕목사회 성탄감사예배 및 이취임식

제 43회기 뉴욕목사회가 지난 22일 저녁 성탄감사예배와 함께 이취임식을 갖고 출범했다.

“예수 사랑 실천하는 목사회”라는 표어를 걸고 출발한 43회기 회장 이만호 목사는 자신이 부회장 출마를 하면서 내걸었던 공약 및 비전을 제시했다. 이만호 목사는 “첫째, 목회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 장학금 수여, 둘째, 선배 원로 어르신 목사님들을 섬기는 복지조성 셋째, 동역자들을 하나로 묶는 연합 넷째, 원주민 선교 후원 다섯째, 진목과 위로 협력 여섯째, 교역자 영성세미나 일곱째, 한라에서 백두까지 민족통일기 도회 등을 실행하려고 한다”며,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역대 회장님들이 쌓아온 역사를 잘 이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부 성탄감사예배는 부회장 김영환 목사의 인도로 기도 송병기 목사, 특송 장로성가단, 성경봉독 최현준 목사, 설교 김남수 목사, 헌금 물찬양 엘림무용단, 헌금기도 조병광 목사, 축도 안창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프라이미교회 담임)



뉴욕목사회 제 43회기 새 임원단과 전임 회장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는 “하나님의 사람”(삼상9: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는 사울의 이야기로 모든 목사님들이 이미 설교의 대지가 머리에 있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오늘 날은 지도자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칼날을 세우고 있지만 뉴욕목사회는 첫째, 칭찬받는 목사회가 되도록 공인의회, 전문가 의식을 갖고 절제하며 노력해야 한다. 둘째, 말한 만큼 행동하고 행동한 만큼 말하는 연행일치를 보여야 한다. 셋째,

성경대로 살면서 예언자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안목과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임하는 황동익 목사는 “1년이 빠르게 지나갔다. 30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가 제일”이라며, “목사회가 뉴욕에 기도의 문을 열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바란다”고



클리어뷰파크 골프장이 청소년 센터에 기금전달하고 있다.

클리어뷰파크 골프장, 청소년센터에 기금전달
청소년센터 밴 구입후원 1,966달러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 밴 구입비로 클리어뷰 파크 골프장이 1,966달러를 전달했다. 이 기금은 지난 8월 뉴욕교협이 동골프장에서 가진 골프대회의 수익금중 20%를 청소년사역에 내놓겠다는 골프장 측의 약속에 따라 진행된 것.

지난 22일 오전 골프장에서 가진 전달식에서 청소년센터 대표 송병기 목사는 클리어뷰 파크 골프장 측에 감사를 표하고, 한인교회들도 청소년 사역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송병기 목사는 “청소년들은 미래 한인교회의 주춧돌이며, 청소년사역을 통해 청소년들이 잘 복음화 돼야 한인교회가 미래가 있다”며, “공재구 사무총장 부임 후 센터 사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인 교회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청소년센터의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센터는 뉴욕교협과 함께 12월 말 리틀백 새 회관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뉴욕참사랑교회 전경과 담임 은희곤 목사

뉴욕참사랑교회 ‘예산% 나눔운동’
미동부생명의전화 등 3곳에 총6천 달러 전달

뉴욕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사)가 25일(목)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웃초청 및 예산 1% 나눔운동’을 실시한다. 이 나눔운동은 3곳을 선정해 각 2천 달러씩 전달하게 된다.

올해는 미동부생명의전화(대표: 김영호), 무지개의 집(소장 윤정숙, 사무총장 김은경),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이 선정됐다.

동 교회는 이 운동을 “열린 교회, 열린 목회” 취지아래 2009년부터 실행해오고 있다.

교회 측은 “미국과 한인 이민사회의 오랜 불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정, 사업, 학업 등의 관계 손상과 파괴에 따른 자살 상담과 한인 노숙자 증가에 따른 지원,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

기존 선교단체는 선교부, 선교회에서 후원)로서, 상담은 미동부생명의전화, 한인 노숙자 지원은 남성 뉴욕나눔의 집, 여성은 무지개의 집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무지개의 집은 2010년에 이어 2번째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원로목사회 12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서로 용납함으로 교회를 세웁시다”
에리자베스한인교회 뉴욕원로목사회 초청

성탄과 연말을 맞아 에리자베스한인교회(담임 소재신 목사)가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 뉴욕지역

에서 목회하다 은퇴한 원로목사부부 60여명을 초청해 예배를 드리고 선물과 아울러 미주미 식당에서 오

찬을 대접했다.

소재신 목사는 에베소 4장 1-10절을 본문으로 “교회를 세웁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소목사는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서로 용납하고, 둘째 온유와 겸손하며, 셋째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우병만 목사와 이순덕 권사(몸찬양), 박진원 선생의 찬양으로 뉴욕원로목사회(회장 소지섭 목사) 회원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우병만 목사(교회일보 대표)는 짬 40포를 원로목사 회원들에게 기증했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뉴욕색소폰오케스트라 크리스마스콘서트
태명사랑장학재단, 5명에 장학금 전달



크리스마스콘서트에서 뉴욕색소폰오케스트라가 공연하고 있다.

뉴욕색소폰오케스트라(NYSO)의 크리스마스콘서트가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플러싱 타운홀에서 유진용 단장의 지휘로 성황리에 열렸다.

차세대 지도자가 될 꿈나무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열린 이번 공연에서는 성탄절을 맞아 익숙한 캐롤에서부터 성가, 팝과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이 연주됐다. 또한 스페셜 게스트로는 플루트 트리오, 아도나 이 댄스팀, 바이올린 유안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음악으로 크리스마스를 장식했다.

태명사랑장학재단(회장 박태환)은 이날 연주회에 앞서 박동욱, 박은주, 박현준, 박효준, 이상우 군 등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사제공: 태명사랑장학재단)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2015. 2.16~2.24-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2015. 2.16~2.26-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3개국 (10박11일)	\$2,699
2015. 3. 2~3. 9- 터키 소아시아 일정 (7박8일)	\$1,999
2015. 3. 2~3.12- 터키, 그리스 2개국 (10박11일)	\$2,699
2015. 3. 2~3.14-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 (12박13일)	\$3,199

〈※ 위외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등록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음선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례 및 정담, 한국 성지(선교회)순례 등등..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점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34th Street, 1st Ave, 2nd Ave, 3rd Ave, 4th Ave, 5th Ave, 6th Ave, 7th Ave, 8th Ave, 9th Ave, 10th Ave, 11th Ave, 12th Ave, 13th Ave, 14th Ave, 15th Ave, 16th Ave, 17th Ave, 18th Ave, 19th Ave, 20th Ave, 21st Ave, 22nd Ave, 23rd Ave, 24th Ave, 25th Ave, 26th Ave, 27th Ave, 28th Ave, 29th Ave, 30th Ave, 31st Ave, 32nd Ave, 33rd Ave, 34th Ave, 35th Ave, 36th Ave, 37th Ave, 38th Ave, 39th Ave, 40th Ave, 41st Ave, 42nd Ave, 43rd Ave, 44th Ave, 45th Ave, 46th Ave, 47th Ave, 48th Ave, 49th Ave, 50th Ave, 51st Ave, 52nd Ave, 53rd Ave, 54th Ave, 55th Ave, 56th Ave, 57th Ave, 58th Ave, 59th Ave, 60th Ave, 61st Ave, 62nd Ave, 63rd Ave, 64th Ave, 65th Ave, 66th Ave, 67th Ave, 68th Ave, 69th Ave, 70th Ave, 71st Ave, 72nd Ave, 73rd Ave, 74th Ave, 75th Ave, 76th Ave, 77th Ave, 78th Ave, 79th Ave, 80th Ave, 81st Ave, 82nd Ave, 83rd Ave, 84th Ave, 85th Ave, 86th Ave, 87th Ave, 88th Ave, 89th Ave, 90th Ave, 91st Ave, 92nd Ave, 93rd Ave, 94th Ave, 95th Ave, 96th Ave, 97th Ave, 98th Ave, 99th Ave, 100th Ave, 101st Ave, 102nd Ave, 103rd Ave, 104th Ave, 105th Ave, 106th Ave, 107th Ave, 108th Ave, 109th Ave, 110th Ave, 111th Ave, 112th Ave, 113th Ave, 114th Ave, 115th Ave, 116th Ave, 117th Ave, 118th Ave, 119th Ave, 120th Ave, 121st Ave, 122nd Ave, 123rd Ave, 124th Ave, 125th Ave, 126th Ave, 127th Ave, 128th Ave, 129th Ave, 130th Ave, 131st Ave, 132nd Ave, 133rd Ave, 134th Ave, 135th Ave, 136th Ave, 137th Ave, 138th Ave, 139th Ave, 140th Ave, 141st Ave, 142nd Ave, 143rd Ave, 144th Ave, 145th Ave, 146th Ave, 147th Ave, 148th Ave, 149th Ave, 150th Ave, 151st Ave, 152nd Ave, 153rd Ave, 154th Ave, 155th Ave, 156th Ave, 157th Ave, 158th Ave, 159th Ave, 160th Ave, 161st Ave, 162nd Ave, 163rd Ave, 164th Ave, 165th Ave, 166th Ave, 167th Ave, 168th Ave, 169th Ave, 170th Ave, 171st Ave, 172nd Ave, 173rd Ave, 174th Ave, 175th Ave, 176th Ave, 177th Ave, 178th Ave, 179th Ave, 180th Ave, 181st Ave, 182nd Ave, 183rd Ave, 184th Ave, 185th Ave, 186th Ave, 187th Ave, 188th Ave, 189th Ave, 190th Ave, 191st Ave, 192nd Ave, 193rd Ave, 194th Ave, 195th Ave, 196th Ave, 197th Ave, 198th Ave, 199th Ave, 200th Ave, 201st Ave, 202nd Ave, 203rd Ave, 204th Ave, 205th Ave, 206th Ave, 207th Ave, 208th Ave, 209th Ave, 210th Ave, 211st Ave, 212nd Ave, 213rd Ave, 214th Ave, 215th Ave, 216th Ave, 217th Ave, 218th Ave, 219th Ave, 220th Ave, 221st Ave, 222nd Ave, 223rd Ave, 224th Ave, 225th Ave, 226th Ave, 227th Ave, 228th Ave, 229th Ave, 230th Ave, 231st Ave, 232nd Ave, 233rd Ave, 234th Ave, 235th Ave, 236th Ave, 237th Ave, 238th Ave, 239th Ave, 240th Ave, 241st Ave, 242nd Ave, 243rd Ave, 244th Ave, 245th Ave, 246th Ave, 247th Ave, 248th Ave, 249th Ave, 250th Ave, 251st Ave, 252nd Ave, 253rd Ave, 254th Ave, 255th Ave, 256th Ave, 257th Ave, 258th Ave, 259th Ave, 260th Ave, 261st Ave, 262nd Ave, 263rd Ave, 264th Ave, 265th Ave, 266th Ave, 267th Ave, 268th Ave, 269th Ave, 270th Ave, 271st Ave, 272nd Ave, 273rd Ave, 274th Ave, 275th Ave, 276th Ave, 277th Ave, 278th Ave, 279th Ave, 280th Ave, 281st Ave, 282nd Ave, 283rd Ave, 284th Ave, 285th Ave, 286th Ave, 287th Ave, 288th Ave, 289th Ave, 290th Ave, 291st Ave, 292nd Ave, 293rd Ave, 294th Ave, 295th Ave, 296th Ave, 297th Ave, 298th Ave, 299th Ave, 300th Ave, 301st Ave, 302nd Ave, 303rd Ave, 304th Ave, 305th Ave, 306th Ave, 307th Ave, 308th Ave, 309th Ave, 310th Ave, 311st Ave, 312nd Ave, 313rd Ave, 314th Ave, 315th Ave, 316th Ave, 317th Ave, 318th Ave, 319th Ave, 320th Ave, 321st Ave, 322nd Ave, 323rd Ave, 324th Ave, 325th Ave, 326th Ave, 327th Ave, 328th Ave, 329th Ave, 330th Ave, 331st Ave, 332nd Ave, 333rd Ave, 334th Ave, 335th Ave, 336th Ave, 337th Ave, 338th Ave, 339th Ave, 340th Ave, 341st Ave, 342nd Ave, 343rd Ave, 344th Ave, 345th Ave, 346th Ave, 347th Ave, 348th Ave, 349th Ave, 350th Ave, 351st Ave, 352nd Ave, 353rd Ave, 354th Ave, 355th Ave, 356th Ave, 357th Ave, 358th Ave, 359th Ave, 360th Ave, 361st Ave, 362nd Ave, 363rd Ave, 364th Ave, 365th Ave, 366th Ave, 367th Ave, 368th Ave, 369th Ave, 370th Ave, 371st Ave, 372nd Ave, 373rd Ave, 374th Ave, 375th Ave, 376th Ave, 377th Ave, 378th Ave, 379th Ave, 380th Ave, 381st Ave, 382nd Ave, 383rd Ave, 384th Ave, 385th Ave, 386th Ave, 387th Ave, 388th Ave, 389th Ave, 390th Ave, 391st Ave, 392nd Ave, 393rd Ave, 394th Ave, 395th Ave, 396th Ave, 397th Ave, 398th Ave, 399th Ave, 400th Ave, 401st Ave, 402nd Ave, 403rd Ave, 404th Ave, 405th Ave, 406th Ave, 407th Ave, 408th Ave, 409th Ave, 410th Ave, 411st Ave, 412nd Ave, 413rd Ave, 414th Ave, 415th Ave, 416th Ave, 417th Ave, 418th Ave, 419th Ave, 420th Ave, 421st Ave, 422nd Ave, 423rd Ave, 424th Ave, 425th Ave, 426th Ave, 427th Ave, 428th Ave, 429th Ave, 430th Ave, 431st Ave, 432nd Ave, 433rd Ave, 434th Ave, 435th Ave, 436th Ave, 437th Ave, 438th Ave, 439th Ave, 440th Ave, 441st Ave, 442nd Ave, 443rd Ave, 444th Ave, 445th Ave, 446th Ave, 447th Ave, 448th Ave, 449th Ave, 450th Ave, 451st Ave, 452nd Ave, 453rd Ave, 454th Ave, 455th Ave, 456th Ave, 457th Ave, 458th Ave, 459th Ave, 460th Ave, 461st Ave, 462nd Ave, 463rd Ave, 464th Ave, 465th Ave, 466th Ave, 467th Ave, 468th Ave, 469th Ave, 470th Ave, 471st Ave, 472nd Ave, 473rd Ave, 474th Ave, 475th Ave, 476th Ave, 477th Ave, 478th Ave, 479th Ave, 480th Ave, 481st Ave, 482nd Ave, 483rd Ave, 484th Ave, 485th Ave, 486th Ave, 487th Ave, 488th Ave, 489th Ave, 490th Ave, 491st Ave, 492nd Ave, 493rd Ave, 494th Ave, 495th Ave, 496th Ave, 497th Ave, 498th Ave, 499th Ave, 500th Ave, 501st Ave, 502nd Ave, 503rd Ave, 504th Ave, 505th Ave, 506th Ave, 507th Ave, 508th Ave, 509th Ave, 510th Ave, 511st Ave, 512nd Ave, 513rd Ave, 514th Ave, 515th Ave, 516th Ave, 517th Ave, 518th Ave, 519th Ave, 520th Ave, 521st Ave, 522nd Ave, 523rd Ave, 524th Ave, 525th Ave, 526th Ave, 527th Ave, 528th Ave, 529th Ave, 530th Ave, 531st Ave, 532nd Ave, 533rd Ave, 534th Ave, 535th Ave, 536th Ave, 537th Ave, 538th Ave, 539th Ave, 540th Ave, 541st Ave, 542nd Ave, 543rd Ave, 544th Ave, 545th Ave, 546th Ave, 547th Ave, 548th Ave, 549th Ave, 550th Ave, 551st Ave, 552nd Ave, 553rd Ave, 554th Ave, 555th Ave, 556th Ave, 557th Ave, 558th Ave, 559th Ave, 560th Ave, 561st Ave, 562nd Ave, 563rd Ave, 564th Ave, 565th Ave, 566th Ave, 567th Ave, 568th Ave, 569th Ave, 570th Ave, 571st Ave, 572nd Ave, 573rd Ave, 574th Ave, 575th Ave, 576th Ave, 577th Ave, 578th Ave, 579th Ave, 580th Ave, 581st Ave, 582nd Ave, 583rd Ave, 584th Ave, 585th Ave, 586th Ave, 587th Ave, 588th Ave, 589th Ave, 590th Ave, 591st Ave, 592nd Ave, 593rd Ave, 594th Ave, 595th Ave, 596th Ave, 597th Ave, 598th Ave, 599th Ave, 600th Ave, 601st Ave, 602nd Ave, 603rd Ave, 604th Ave, 605th Ave, 606th Ave, 607th Ave, 608th Ave, 609th Ave, 610th Ave, 611st Ave, 612nd Ave, 613rd Ave, 614th Ave, 615th Ave, 616th Ave, 617th Ave, 618th Ave, 619th Ave, 620th Ave, 621st Ave, 622nd Ave, 623rd Ave, 624th Ave, 625th Ave, 626th Ave, 627th Ave, 628th Ave, 629th Ave, 630th Ave, 631st Ave, 632nd Ave, 633rd Ave, 634th Ave, 635th Ave, 636th Ave, 637th Ave, 638th Ave, 639th Ave, 640th Ave, 641st Ave, 642nd Ave, 643rd Ave, 644th Ave, 645th Ave, 646th Ave, 647th Ave, 648th Ave, 649th Ave, 650th Ave, 651st Ave, 652nd Ave, 653rd Ave, 654th Ave, 655th Ave, 656th Ave, 657th Ave, 658th Ave, 659th Ave, 660th Ave, 661st Ave, 662nd Ave, 663rd Ave, 664th Ave, 665th Ave, 666th Ave, 667th Ave, 668th Ave, 669th Ave, 670th Ave, 671st Ave, 672nd Ave, 673rd Ave, 674th Ave, 675th Ave, 676th Ave, 677th Ave, 678th Ave, 679th Ave, 680th Ave, 681st Ave, 682nd Ave, 683rd Ave, 684th Ave, 685th Ave, 686th Ave, 687th Ave, 688th Ave, 689th Ave, 690th Ave, 691st Ave, 692nd Ave, 693rd Ave, 694th Ave, 695th Ave, 696th Ave, 697th Ave, 698th Ave, 699th Ave, 700th Ave, 701st Ave, 702nd Ave, 703rd Ave, 704th Ave, 705th Ave, 706th Ave, 707th Ave, 708th Ave, 709th Ave, 710th Ave, 711st Ave, 712nd Ave, 713rd Ave, 714th Ave, 715th Ave, 716th Ave, 717th Ave, 718th Ave, 719th Ave, 720th Ave, 721st Ave, 722nd Ave, 723rd Ave, 724th Ave, 725th Ave, 726th Ave, 727th Ave, 728th Ave, 729th Ave, 730th Ave, 731st Ave, 732nd Ave, 733rd Ave, 734th Ave, 735th Ave, 736th Ave, 737th Ave, 738th Ave, 739th Ave, 740th Ave, 741st Ave, 742nd Ave, 743rd Ave, 744th Ave, 745th Ave, 746th Ave, 747th Ave, 748th Ave, 749th Ave, 750th Ave, 751st Ave, 752nd Ave, 753rd Ave, 754th Ave, 755th Ave, 756th Ave, 757th Ave, 758th Ave, 759th Ave, 760th Ave, 761st Ave, 762nd Ave, 763rd Ave, 764th Ave, 765th Ave, 766th Ave, 767th Ave, 768th Ave, 769th Ave, 770th Ave, 771st Ave, 772nd Ave, 773rd Ave, 774th Ave, 775th Ave, 776th Ave, 777th Ave, 778th Ave, 779th Ave, 780th Ave, 781st Ave, 782nd Ave, 783rd Ave, 784th Ave, 785th Ave, 786th Ave, 787th Ave, 788th Ave, 789th Ave, 790th Ave, 791st Ave, 792nd Ave, 793rd Ave, 794th Ave, 795th Ave, 796th Ave, 797th Ave, 798th Ave, 799th Ave, 800th Ave, 801st Ave, 802nd Ave, 803rd Ave, 804th Ave, 805th Ave, 806th Ave, 807th Ave, 808th Ave, 809th Ave, 810th Ave, 811st Ave, 812nd Ave, 813rd Ave, 814th Ave, 815th Ave, 816th Ave, 817th Ave, 818th Ave, 819th Ave, 820th Ave, 821st Ave, 822nd Ave, 823rd Ave, 824th Ave, 825th Ave, 826th Ave, 827th Ave, 828th Ave, 829th Ave, 830th Ave, 831st Ave, 832nd Ave, 833rd Ave, 834th Ave, 835th Ave, 836th Ave, 837th Ave, 838th Ave, 839th Ave, 840th Ave, 841st Ave, 842nd Ave, 843rd Ave, 844th Ave, 845th Ave, 846th Ave, 847th Ave, 848th Ave, 849th Ave, 850th Ave, 851st Ave, 852nd Ave, 853rd Ave, 854th Ave, 855th Ave, 856th Ave, 857th Ave, 858th Ave, 859th Ave, 860th Ave, 861st Ave, 862nd Ave, 863rd Ave, 864th Ave, 865th Ave, 866th Ave, 867th Ave, 868th Ave, 869th Ave, 870th Ave, 871st Ave, 872nd Ave, 873rd Ave, 874th Ave, 875th Ave, 876th Ave, 877th Ave, 878th Ave, 879th Ave, 880th Ave, 881st Ave, 882nd Ave, 883rd Ave, 884th Ave, 885th Ave, 886th Ave, 887th Ave, 888th Ave, 889th Ave, 890th Ave, 891st Ave, 892nd Ave, 893rd Ave, 894th Ave, 895th Ave, 896th Ave, 897th Ave, 898th Ave, 899th Ave, 900th Ave, 901st Ave, 902nd Ave, 903rd Ave, 904th Ave, 905th Ave, 906th Ave, 907th Ave, 908th Ave, 909th Ave, 910th Ave, 911st Ave, 912nd Ave, 913rd Ave, 914th Ave, 915th Ave, 916th Ave, 917th Ave, 918th Ave, 919th Ave, 920th Ave, 921st Ave, 922nd Ave, 923rd Ave, 924th Ave, 925th Ave, 926th Ave, 927th Ave, 928th Ave, 929th Ave, 930th Ave, 931st Ave, 932nd Ave, 933rd Ave, 934th Ave, 935th Ave, 936th Ave, 937th Ave, 938th Ave, 939th Ave, 940th Ave, 941st Ave, 942nd Ave, 943rd Ave, 944th Ave, 945th Ave, 946th Ave, 947th Ave,



구세군 나성교회가 주최한 지역사회 위한 사랑의 장난감 및 음식나눔행사 상황리에 열렸다

400여 지역주민에 그리스도사랑 듬뿍 담아 구세군나성교회, 장난감 및 음식 나눔 행사

구세군 나성교회(담임 이주철 사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장난감 및 음식나눔행사가 22일 오전 11시30분 상황리에 열렸다. 이번 나눔행사는 한인사회가 라티노 및 흑인사회를 위해 마련이 된 것이다.

이주철 사관은 “홍보를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비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고 운을 뗀 후 “작년에 처음 이 행사를 실시했다. 작년에 참여했던 120여명의 참가자들로 인해 입소문이 났던 것 같다. 올해는 예상보다 신청자가 증가했다. 장 소문제를 고려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내년에는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년 전부터 기획했으며, 2주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선물은 아동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과 파스타, 라면, 오트밀, 마카로니치즈 등이 담겨있는 음식선물세트이며, 구세군교회를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는 불고기 백반이 제공됐다.

이번 행사는 자선냄비의 기금과 기업체들의 장난감 기부로 마련됐다. 구세군교회는 이 행사를 연례행사로 실시하게 되며, 이 행사를 통해 민족 간 화합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찬양간증집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집회'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유은성-김정화 부부 초청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찬양간증집회'를 17일 오후7시에 열었다. 이번집회는 CCM가수 유은성 전도사와 텔런트 김정화 부부가 초청된 가운데 열렸으며 3백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소개하며 진행된 집회는 유 전도사의 간증과 찬양, 김정화 사모의 'NGO기대책'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화 사모는 현재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우간다의 아이들을 소개하면서 회중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유은성 전도사는 간증을 통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20개 주 이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고 돌아가는 귀중한 시간을 보내

고 있다. 한인교회들은 여전히 순수하고 희망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라며 그 동안의 사역에 대한 소감을 털어놓았다.

한편 이번 공연을 주최한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의 방상용 목사는 "세리토스에 위치한 지역교회로서 이 지역을 섬기며 선교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이번 집회가 지역사회 및 교회에 덕을 세우는 연합사역이 됐음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로 이번 공연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공연을 기획한 청년부 최순환 목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역들을 제공하며, 더욱더 쓰임받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얼바인아름다운교회 입당 및 설립예배

99년 설립 남가주부흥교회에서 명칭 변경

얼바인아름다운교회(IBC 담임 이동준 목사) 입당 및 설립예배가 21일 오후 4시 상황리에 열렸다. 이동준 목사의 사회와 IBC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박병설 목사(샌디에고 사랑의 교회)가 기도를, 박상열 목사(반석교회)가 성경 봉독했으며 나성순복음교회 성가대의 찬양주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크고 놀라운 사랑'(수1:3-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김운년 목사(큰사랑선교회)가 봉헌기도, 그리고 장재원 목사(복된교회)가 축도했다.

이어 진행된 '은혜의 밤' 시간에는 IBC 건축위원장의 건축보고, 감

사파 수여,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와 이선영 목사(얼바인열린교회)가 축사를, 이서 목사(비전교회)가 격려사를, 그리고 최명자 사모가 축가를 불렀다.

이날 모든 순서는 이동준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얼바인아름다운교회는 지난 99년 4월 부에나파에서 남가주부흥교회로 설립했으며 같은 해 11월 놀원에서 첫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후 11월 8일 현 위치인 17702 Cowan Irvine, CA로 이전을 시작했으며 2014년 12월 1일 얼바인아름다운교회로 교회명칭을 변경했다.

(박준호 기자)



얼바인아름다운교회 입당 및 창립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 되라" 월서크리스천교회, 김운태, 스티브고 장로임직 예배

월서크리스천교회(담임 엄규서 목사) 장로임직예배가 지난 14일 오후 4시 열렸다. 이날 김운태, 스티브고 장로가 임직했다.

본 교회 최장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이성도 목사(나성중앙교회)가 기도했으며 김효철 목사(예수비전교회)가 성경봉독을, 김창원 장로가 색서폰 연주를 했다. 이어 DON DEWEY 목사(크리스찬재치회 태평양지방회 회장)가 'The Gift of Joy'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라"고 당부했다.

류창열 목사(나눔동산교회)의 사

회로 시작된 2부 임직식은 이승철 목사(벨라가독교교회)가 기도했으며 엄규서 담임목사의 장로 서약식 및 선조 장로패 증정, 김재중 목사(남가주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회장)가 축하패를 증정했다.

이어 김정환 목사의 안수기도, 김재중 목사가 임직자에게 권면, 안대진 목사(싸우스베이한인교회) 교회에 권면, 그리고 천진석(제자회 아시아연합회 디렉터), 최태희 목사(산타모니카교회)의 격려사가 있었고 고 안재관 목사의 축도로 행사를 모두 마쳤다.

(기사제공: 월서크리스천교회)

말씀새로운교회, 유학생 3명에 성탄장학금 지원



말씀새로운교회 유학생 3명에게 성탄장학금 수여식을 실시했다

서부교회게 게시판

LA사랑의교회 예배장소 변경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27일(토) 새벽예배부터 모든 예배모임을 버질중학교(152 N. Vermont Ave, LA, CA)에서 드리게 된다.

▲문의: (213)386-2233

사랑의빛선교교회 신년특새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는 신년특별새벽기도를 2005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예수로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일정은 △5일(월): 윤대혁 담임목사 △6일(화):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 담임) △7일(수), 8일(목):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9일(금): 권혁빈 목사(얼바인온누리교회 담임) △10일(토): 김단 목사(사랑의빛선교회).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20분, 토요일은 오전 6시다.

▲문의: (626)744-9191

은혜실업인협회 조찬기도회

은혜실업인협회 조찬기도회가 오는 27일(화) 오전 7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비전센터 223호에서 열린다.

▲문의: (714)446-6200



웨이크시티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LA우리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강당에서 상황리에 열렸다

LA우리교회 '웨이크시티 크리스마스 콘서트' 성황

LA우리교회(담임 니콜라리 목사)는 '웨이크시티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20일 오후 6시30분 본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로버트 F. 케네디 커뮤니티 학교강당에서 상황리에 개최했다.

니콜라리 목사는 "오늘 콘서트는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콘서트를 위해 이곳에 모여드는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웨이크시티 찬양밴드의 찬양인도

로 시작된 콘서트는 니콜라리 목사의 인사말과 기도, 한 별 목사(순복음대학원 대학교 총장, 서울대치순복음교회 담임)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웨이크시티는 2014년 7월 처음으로 발간한 Still Believe 앨범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온라인 포털 사이트인 갯피플닷컴에서 2014년 7월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한 찬양그룹이다. 유튜브에서는 웨이크시티의 곡들을 따라 부르는 교회 동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말씀: 오후 6:30 E.M. 대부부: 오후 11:30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u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 찬양: 오후 1:30 목요 찬양: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 예배: 오후 7:00 새벽 예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0 목요 예배: 오전 11:10 (Holywave-영어예배) (KDC-한국어예배) 주일 4부 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5:30(월-토) lalocusa@yahoo.com / www.lalo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skpc.org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오전 9:30 3부 영인예배: 오전 11:00 4부 영인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역 1부예배: 오전 9:30 영역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역)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전 1:00(청년)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 오전 1:00 영양예배: 오후 1:00(수-토),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pastor@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안다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역)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예배: 오전 5:30 수요예배: 오전 11: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a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역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 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대 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하와이 12 새벽기도: 오전 6:30(토) 수, 금, 토, 일: 영성예배: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org / ysyon@gmail.com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새천양교회  담임목사 : 변윤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역예배: 오후 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화-토)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www.newpraisechurch.org / ysyon@gmail.com Tel: (714)826-0100, Fax: (714)844-3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 김만수 영역 1부예배: 오전 9:30 영역 2부예배: 오전 11:00 영역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목요일 예배: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 (818)952-2449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다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역)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예배: 오전 5:30 수요예배: 오전 11: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a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저녁 7:3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역)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수요 찬양: 오전 11:00 토요찬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새기기도회: 365일 24시간 온로 www.gracemc.com Tel: (714)446-6207,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estv.com / e-mail: pastor@lacom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역)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월-토) 주일 6부예배: 오후 1:00 말씀예배: 오후 8:00 www.torre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크리스천 리더십 (10)

느헤미야의 리더십(9):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2)(느헤미야 5:1-13)

번역 및 요약: 최운동 목사 (감사한인교회)



우리는 느헤미야가 백성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1 단계로 리더는 잘못된 일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어야 한다. 2단계는 그 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계획된 분노여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적인 분노는 리더를 잘못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목적을 향해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 위한 의도된 분노(怒)를 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단계: 개인적으로 당사자들을 대면하라

리더는 문제의 당사자들을 개인적으로 대면해야 한다. 5장 7절에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거래끼리

도요청이 있습니까...”는 식으로 어떤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것은 신성한 가십에 불과하다. 당사자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서 그 사실을 말한다면 당신은 죄를 짓는 것이다. 마태복은 18:15-17에서 예수님은 갈등을 해결하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만일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죄를 짓는다면, 가서 당신과 둘 사이에서 그의 잘못을 보여주라. 만일 그가 당신의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만일 그가 여러 증인들과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사자를 교회 앞에 데려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먼저 당사자들과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서

인 분열을 다루라

느헤미야는 당사자들을 먼저 개인적으로 대면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부자들의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더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도에 따라 공개적으로 일을 다루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개인적인 죄라면 개인적으로 일을 다루고, 만일 그 일이 사람 사이의 사적인 일이라면 그것을 사적으로 다루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교회 전체와 연관된 일이라면 리더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루어 해결해야 한다. 7절에 “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속고하고 나는 귀족들과 고관들을 고발했다. ...그래서 그들은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느헤미야는

기심이다. 야고보서 4:1은 “여러분 사이에 무엇이 싸움과 갈등을 일으킵니까? 그것들은 당신 안에서 싸우는 욕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라고 말한다. 무엇이 갈등을 일으키는가? 이기심이다.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적 마음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비이기주의적인 리더십의 본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그가 사람들에게 성벽을 재건하자고 말할 때, 그도 성벽을 쌓으면서 밖에서 거하였다. 사람들에게 기도하자고 말할 때 그는 이미 기도하고 있었고, 그가 사람들에게 성벽을 쌓기 위해 함께 머물자고 요청했을 때, 그 자신도 성벽을 쌓으면서 밤과 낮으로 일했다. 그가 사람들에게 가난한자들을 돕자고 말할 때, 그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



방지일 칼럼 (70)

“본대로 들은 대로”

삶의 중심(무엇을 위하여)

사람의 삶의 목적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삶의 값이 나갈 것이다. 그 삶의 범위가 작을수록 낮은 값이 되겠고 클수록 그 값이 나갈 것이다. 일을 한다, 땀을 흘린다, 생명을 걸고 산다, 그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값이 비천할 뿐이다. 좀 큰 시야에서 나보다 더 큰 나를 위해 사는 그 삶을 위할 때 그 삶의 비중에 따라 그 삶의 값이 더해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20:35) 하신 말씀이 큰 기준이 되기도 하겠다. 이를 수학으로 표시한다면 사람의 값이 수급이라는 수치로 표하게 된다. 받는 것이 많을수록 복은 적어진다. 돌을 받고 하나 주면 1/2=0.5 돌을 받고 넷을 주면 4/1=2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그 복이 어떻게 커진다 함을 알만하기도 하다. 숫자로 풀이하는 것보다 내 삶의 목적이 더 큰 나, 내 나라, 더 나아가 전세계 인류를 위한다면 알만하다.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또 내 죽을 대신 죽어주신 그 구속주, 그 속죄주, 그 대속주를 위한 그 삶이 최고의 값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14:7-8) 삶의 최고봉이 여기 있음이라, 이는 지대한 우리 삶의 목표임이다. 그의 죽음이 나를 대신했음이며 나는 주님의 죽음심으로 살았은즉 나는 그를 위하여 삶이 너무나 지대한 일이라 신앙인의 삶이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속죄로 사죄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고작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육적 어떤 편의 또 이익을 위한다면 그런 역도(逆徒)가 없을 것이다. 헌금을 하면서도 더 주시마 하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한다면 이는 장사꾼의 영리주의라 신앙인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때로 안수 기도를 원하는 이들이 자신의 어떤 주권을 위한다거나 어떤 권위를 위해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 이도 자사(自私) 자리(自利)의 영리에 불과한지라 신앙인으로 할 일이 아니다. 시몬이 베드로에게 은을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사려함과 방물한 일이라 하겠다. 안수함을 받는다함은 성령의 지배하에 둔다는 뜻일 것이니 자신의 것은 다 그의 주권 하에 바침이다. 전투적 용어로 투항에 해당하니 내 무장은 완전히 해제된지라, 나는 상대에게 완전투항하면서 내 생명조차도 그에게 던진 것이다. 내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의 것이 되어집이다. 내 무장이란 내 지능, 내 방법, 내 경험 등등 “내가” 하는 일체의 소위 내적장 의식이라 내 것이 있을 때는 내 직업이 되고 마는 것이라 주의 역사 안 할 수는 없음이다. 안수기도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점을 분명히 말해주어야 한다. 자기보다 연배 자기보다 경력이 많다. 자기보다 지위가 있는 듯 할 때 그런 기도부탁을 하고 와서 무릎을 꿇는다. 어떤 영리적 동기에 기인했다면 바로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오늘 안수기도를 원하는 이들이 경향을 그렇게 봐야 할 것이다. 바로 타이르고 우리 주님께 같이 투항하는 기도가 되어야 만족하리라 생각된다. 신앙을 이용하려고 주를 이용하려는 일은 참으로 망령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 삶의 목적은 오직 나 위하여 대신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내 주님께 나를 바치는 안수기도여야 한다. 주께 전적 투항하여 주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졌을 때 그가 필요에 적당히하게 사용하신다. 보혜사의 장중에 잡히어 그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 만족하다. 신앙인으로서 그 삶의 목표가 고상(高尚)에 이르렀다 하겠다.

주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침을 받아 사는 그 삶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 만족할 뿐이다. 내 영리(營利)를 잘 이용이 주님의 사람으로 은혜라 생각함은 큰 착오일 것이다. 나는 없애지고 그만 이 계시는 삶이 내 삶의 가장 좋은 방향인 것이다.

(2007년, 28권)

맞대면해 말하고 공적인 일은 공개적으로 다루야

리더가 먼저 비이기적 삶 살고 교인들에게 요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고 말한다. 고리대금은 터무니 없는 이자를 붙이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직접 가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맞서는 것을 좋아하는가? 나는 사람들과 맞서는 것을 싫어한다. 그건 별로 신나는 일이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싶고 불편한 감정을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나 때로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맞서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리더로서 내가 교회에서 문제를 맞서지 않는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기다린다고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으며, 오래 기다릴수록 문제를 맞서는 데는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다. 문제는 빠른 시간에 대면하여 해결해야 한다.

주의할 점: 문제를 해결할 때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직접 가야 한다.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는 기

이다.

리더십 법칙: 리더는 맞대면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만일 당신이 리더가 되려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깨달아야 할 기술이다. 사랑가운데 진실을 말하라. 리더십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리더십은 인기를 끌려고 하는 위치가 아니다. 리더는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밖의 소리가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이것은 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맞대면 할 것입니다. 가족의 더 큰 유익을 위해, 사업의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의 더 큰 유익을 위해... 당신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상관 없습니다. 이 일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다. 디도서 3:10-11절에 보면, 목회자는 문제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도록 명령하고 있다. 리더의 책임중의 하나는 문제의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와 리더들이 사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빈정대는 사람들을 맞대면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

4단계: 결단-공개적으로 공적

그가 사적으로 귀족들과 고관들에게 말했던 것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은 느헤미야가 매우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가? 그는 공개적으로 도시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부유한 자들을 꾸짖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데 자금을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귀족들과 고관들은 자금줄이 되는 사람들이고 성벽공사에 돈을 낼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느헤미야에게 이것은 정말 모험이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상관없이 올바른 일을 했다. 만일 이 일로 성벽공사가 며칠 지체 된다고 해도 그는 상관없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정직함을 보여준다. 결국 귀족과 부자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정직한 삶을 보았기 때문이다.

5단계: 리더의 비이기주의적인 삶을 보여준다.

내적 갈등과 불일치의 근본 원인은 언제나 이기주의의 마음이다. 가족안에서, 친구간에,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갈등의 근본은 언제나 이

었다. 그리고 그는 총독으로서의 당 받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그가 가진 개인 재산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도와주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비이기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부유층과 소유주들이 사람들을 착취하는 방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느헤미야는 결코 그 자신이 기꺼이 하지 않고, 또는 이미 하고 있지 않은 일을 사람들에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깨끗한 양심으로서 말할 수 있었다. “나를 따라서 행하시오.” 그것이 바로 리더의 특징이다.

리더십 법칙: 리더는 자신이 이미 하고 있는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담대함의 비결이었다. 리더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델을 따라 하도록 도전할 수 없다면 리더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리더가 먼저 비이기적으로 살고 모델을 보여주는 삶을 산다면 교회 안에는 거의 갈등이 없을 것이다.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새벽: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344-1512, Fax: (215)945-2095
820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틀교회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종교개혁(영): 오전 10시 (한): 오전 11시
유지, 유년: 오후 2: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898(렉스쿨)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KoreanChurch.org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www.kpcd.org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엑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새벽: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344-1512, Fax: (215)945-2095
820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앨파소일린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앵커리지영림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영림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15)755-1490, Fax: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새벽: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urora, VA 22003

주제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173 St. Charles Pl.,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월-토)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2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mc.org

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tpkcca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영아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 펴기

멕시코

어느새 2014년이 다가고 있습니다. MBM(Meditacion Biblica Mexico)사역을 위해 한해도 변함없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 올해는 더 많은 결실을 안겨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을 통해 멕시코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에스라 성경학교를 통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 모든 분들의 정성과 사랑의 결실이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과 후원 교회와 성도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에스라 성경학교 첫 번째 졸업식

멕시코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주 사역은 센터에서 성경목상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과 타 지역마다 다니며 일정기간 세미나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인 세미나로는 멕시코 현지 리더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

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학교를 꿈꾸게 되었고 3년 전 에스라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매 학기마다 35명에서 많게는 50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등록을 했지만 쉽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비롯해 리더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에서 나오고 있었고 어떤 이는 4시간씩 걸려 학교를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학점을 이수할 수 없었고 단 4명만 졸업의 기쁨을 안게 되었습니다. 12월 13일 드려진 졸업예배는 학생들과 MBM사역을 아끼는 한인 성도님 등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졸업한 Elisa Garcia, Natalia Alvaro, Vesenia Ramos, Ricardo Garcia(Pastor)는 현재 모두 교회 리더들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열정을 품고 수업을 받아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에스라성경학교의 졸업식은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없는 조촐한 졸업식이었지만 참석한 이들과 학교 스태프들, 졸업생 모두는 시종 일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아름다운 졸업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MBM사역과 에스라성경학교를 통해 매년 리더들이 배출되어 이곳 멕시코 교계와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Actopan 가정교회

멕시코시티에서 약 130km 떨어진 Actopan 지역에 한 가정에서 지난 2012년 6월 성경 목상 훈련을 하였습니다. 5주에 걸친 세미나가 끝나고 훈련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은 스스로 개인 목상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년반동안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몇몇 가정 이 함유하게 되어 함께 꾸준한 모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지역교회로 출발하고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에스라성경학교 첫 졸업생들과 함께 기념촬영.

Nezahualcoyotl 지역 목회자 세미나

2014년 12월 22일 Nezhualcoyotl 목회자협의회로부터 올해 마지막 세미나를 부탁 받게 되었습니다. 사역 초기에 이 지역 많은 교회에서 성경목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올해 중순부터 Neza지역 목회자협의회 관계자와 자연스럽게 다시 교제하게 되었고, 단회적인 행사가 아닌 정기적인 세미나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을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어, 맡겨진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에 성경목상사역이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기 사역들:

앞서 소개해 드린 사역들 외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정기 세미나는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마다 성경 목상 센터에서

열리는 사역입니다. 멕시코시티 각처에서, 그리고 시티를 벗어난 주변 곳곳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지역교회 목회자, 리더들이 모여 약 3시간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매달 말씀을 전하는 강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리더 양육 훈련은 성경목상사역을 위한 리더를 세우는 목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10명의 리더가 세워지고 양육 받고 있습니다. 하나

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Cuautepec 지역 정기 세미나

Cuautepec은 멕시코시티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지난 7월부터 격월로 시작된 세미나가 2015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곳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



에스라성경학교를 섬기고 있는 현지인 스텝 나훔목사가 다음 학기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합니다.

성경 목상집 출판사역

격월로 출판되는 성경목상집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목상을 위한 도구로서 매일 주어진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돕는 책자입니다.

독서나 책을 구입하는 일이 문화적으로 낯선 현지인들에게, 두 달에 한번 자비로 책을 구입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벽을 뛰어 넘어 3년, 5년을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멈춰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2014년도 은혜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인력과 물질을 통해 멕시코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록...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순종하며 따라 갈수 있도록...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와 멕시코 성경목상사역 리더들 모두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성경목상사역과 에스라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멕시코 지역교회와 함께 복음 선포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멕시코에서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 드림.

parkchiman@gmail.com

십자말 • Cross Word (63)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 푸는 열쇠>

1. OOOO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겔48:8).
4. 거리낌 없이 함부로 행동함(고사성어).
6. 정권을 잡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마20:25).
8. 모종을 옮겨 심음(사17:10).
9. 사무엘의 어머니(삼상1:10).
12. 일어나라 빛을 OOO(사60:1).
14. 그돌라오멜의 침략 때 고모라와 이름(창14:2).
15.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OOOOO.
16. 오랜 옛날(왕하19:25).
18. 라합의 직업(약2:25).
19. 여지없이 흠여지거나 깨어진 모양(삼상2:10).
21. 크리스마스. 거룩한 탄일.
23. 우두머리 가운데...(스8:24).
25.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OOOO(단3:26).
26. 유다 자손인데 이것을 지명으로 해석하는 자도 있다(대상4:3).

<세로 푸는 열쇠>

2. 유대의 남방 경계에 있는 성읍(겔47:19).
3. 남의 집에서 천한 일에 종사하는 여자(눅1:48).
4. 삼가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겔16:30).
5. 세상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음(고후6:9).
7. 내가 네 원수로 O OOO 되게 하기까지(행2:35).
8. 미국이 전쟁했던 중동국가. 석유생산국(상식).
10. 이스마엘 족속의 족장 중 한 사람(대상5:19).
11.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고 간신히 살아남(고사성어).
13. 베냐민의 한 성읍(수13:26).
17. 높은 메(사30:25).
18. 한때 정신을 잃음(눅21:26).
20. 헬라인이 에돔을 이렇게 부른다(막3:8).
21.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OOO 평온하더라(왕하11:20).
22. 성경말씀은 바르고 확실하고 틀린 곳이 없다. 정확 OO(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중).
24. 찬송가 123장에 나오는 후렴. 프랑스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

십자말 정답

10	40		20	40	40	40	40	40
40		2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76)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 교육활동은 한인교회들 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해야한다

지금까지 한인교회의 교육이야기를 나누며, 특히 그 미래적 과제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기위해 한인교회들이 행해야 할 많은 교육활동들을 제안해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제안된 한인교회의 교육활동들에 대해 일면 동의하면서도 “과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교육활동들을 다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은 같고, 또 꼭 필요한 것도 같은데, 반드시 행하라 제안된 교육들은 어쩐지 너무 넘치는 듯하고 또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충분히 너무나 과중한 사역의 무게를 체감하는 사역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위를 설명하며 더 많은 짐을 지라 요구하는 것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고 있고 또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시 그에 해당되는 교육을 제공할 역량이 충분한 반면,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고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소형교회들은 필요하다고 제안해온 미래적 교육과제들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교회교육활동조차 때때로 버거워하며 힘겨워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한인교회 자체들의 균형적인 성장과 전체 한인신앙공동체의 바람직한 자리매김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탄탄하고 풍성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이러한 교회교육의 양극화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풍성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다가, 양질의 교육의 혜택을 받는 지체들과 그렇지 못한 지체들 간의 격차도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만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심각

함을 이야기하면서, 노인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처하는 한인교회 교육사역의 일환으로 “노인대학”의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아카데미 형태의 다양한 교육적 모임들을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는 대형교회들은 그 다양한 아카데미들 중 하나로 노인대학, 은빛대학, 혹은 실버아카데미 등과 같은 이름 아래 노인들을 위한 교육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어르신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맞는 강사진들을 섭외하여 구성하고, 교실 및 교육 기자재 등이 구비하고, 행정적인 뒷받침과 제반 환경 등을 탄탄하게 지원하며 그 교육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교회들의 경우, 어르신들의 숫자를 전부 합해도 워낙 기존 교인들의 수 자체가 적으므로 사실 그 수가 몇 안 되는데다가, 노인대

양질 교육실행 위해 인적/물적 자원, 시스템 인프라 구축 필요
대형 교회와 소형교회가 상호 협력함으로 교육활동 연합 진행

러한 제안들의 이면에 가장 높은 교육사역의 지평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신앙공동체 안에는 그간 제안했던 교육활동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충분히 실행할만한 역량이 되는 한인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그 이상을 실행하며 발 빠른 현실대처 및 월등한 미래지향성을 보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교회들이 대도시의 일부 대형교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제안해온 교육활동들에 대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현실적 실행에 대한 의구심과 사역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그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인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교회교육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서, 교회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폭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풍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진 대형교회들은 모든 필요한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며, 훌륭하고 풍성한 교육을 그 지체들에게 제공할

한 것이 아니라, 한인교회공동체 안의 교육에 있어서도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이 한인교회와 한인교회교육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개 교회들 하나하나 모두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 및 시스템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80여명 미만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소형교회들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문제해결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한인교회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미래지향적 교육활동을 개 교회들이 각개전투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연합 진행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최소한 그 시작에 있어서는 보다 역량 있는 교회들이 역량이 부족한 교회들을 위해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대형교회들이 소형교회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제안했던 노인대학을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한인교회교육이 그 섬기는 대상인 지체들의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학의 형태로 교육적 노력을 실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시스템도 구축이 안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한인교회교육이 전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형교회들과 소형교회들 간의 협력을 통해 양자의 교육활동 간의 격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사역적 혜택이 편만하게 두루 끼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대형교회의 노인대학은 협의를 거쳐 소형교회의 노인들을 흡수하여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 소형교회측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 협력체제에 공헌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대형교회들은 왜 다른 교회의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하나며 불평하는 마음이나 개 교회 이기주의를 버리고 또한 소형교회들은 괜한 자존심이나 교인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세속적인 두려움을 버리고, 한 나라의 백성들을 섬긴다는 사역의 대지를 공유하며 아름다운 협력과 나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간 제안했던 많은 교육적 과제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실행되게 하는 한인 교회 교육의 마지막 미래적 과제인 것입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나의 서원을 감으리이다!(시22:25)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모든 은혜에 감격해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서원을 감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생각해보니 오늘 찬양할 수 있

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서원을 감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고 축복을 받아 누릴 때 그 옛날 서원한 것들과 그 옛날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감을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세상은 잘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는데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시22:26)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겸손한 자를 배부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라는 뜻은 24절에 나온 곤고한 자와 같은 뜻으로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속에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은 주님만의 의

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영원히 위로해주시고 영원히 먹고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겸손 함안에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며!(시22:27-31)

다윗은 복음이 전파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며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계 선교에 열정을 품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민족이 기억하며 돌아와서 주님께 경

배할 것을 생각하면 감격하며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권세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후손들이 대를 이어 서로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똑같은 형제자매로써 한 지체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목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시23:1)

23편은 시편 중에 진주와도 같은 감사의 시입니다. 진주가 조개 속으로 들어온 모래 때문에 그 아픔을 막기 위해서 진액을 낸 것이 굳어서 보석이 된 것과 같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으며 그 분이 나를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감사한 노래입니다. 23편은 다윗이 노년기에 자신의 지나온 시절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평생에 은혜가 되는 시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양이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없이 방황하는 들짐승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성도가 전폭적으로 여호와께 속해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요 위대한 목자요 목자장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구속주가 됐고 양무리를 끝까지 소유하고 책임지는 소유주이며 양무리를 끝까지 양육하시는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양은 가장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그냥 두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평생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은 또한 가장 어리석습니다. 푸른 초장이 눈앞에 펼쳐 있는데도 메마른 땅으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가야할 길로 가지 않고 이상한 길로 자꾸

갑니다.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주목할 것은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와 이 세상의 목자시며 수많은 양들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다”라고 단순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토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

오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될지라도 “나에게는 나의 목자되신다”는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요! 그 분이 나를 돌보시고 그 분이 나를 지키시며 그 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목자시다”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돌보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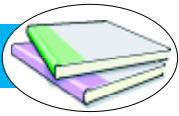
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풍족하게 채워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늙어서 몸이 약해질지라도 내가 병들어 아플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침례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5:00(매일)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독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104-270)		승중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신사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의왕로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독산로 171 29(삼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서교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세곡3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동 415 www.yangk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침례예배: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예수, 내 삶의 내비게이션”

저자 김재열 목사

책 소개



“The Blue Print”

“내 인생의 건축가 하나님의 청사진”

저자 박철수(로버트 박) 목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혼혈아로 태어나 목사가 되기까지 괴란만장 인생드라마

주, 이삿집센터 집권, 니켈광산 광부, 택시운전사, 은행장,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 그의 괴란만장 인생 드라마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박철수 목사는 책을 집필하면서 작은 소망이 생겼으며, “저처럼 부족하고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도

않았습니까. 독자들도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은 또 “The Blueprint”라는 제목으로 영어로도 출판됐다.

남침례신학교 교수이며 작가인 데이비드 실스 박사는 “The Blueprint”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길에 이것 하나만 준 비한다면 아무런 염려 없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잠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더라도 단추 하나만 누르면 바른 길을 알려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뉴욕중부교회 담임 김재열 목사가 15년을 기다려온 동 교회의 ‘비전랜드’ 건축을 시작하면서 최근 칼럼집 “예수, 내 삶의 내비게이션”

책은 1부 받은 은혜, 2부 사랑하며 사는 삶, 3부 예수, 내 삶의 내비게이션, 4부 자라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의 주제아래 1부에는 “내 뜻대로



서 개척을 시작해 토론토 목회에 이어 뉴욕에서 18년간 이민목회를 해온 김 목사의 삶과 목회를 담은 본서는 책의 제목처럼 독자들로 하여금 내 삶의 인생길을 예수께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길을 보여주십니다...그 분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만 가게 됩니다. 실수하여 길을 벗어나도 그분께서는 온유하게 또 다시 새 삶의 길을 안내하십니다. 결코 화를 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아니 온 인류가 영원한 삶의 내비게이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출판 생명의말씀사, 총 254페이지. 책 구입은 미주내 각 서점에서 볼 수 있다.

이메일: jykim47@gmail.com (유원정 기자)

신앙적 삶의 이야기 진솔하게 답아

을 출판했다. 자신이 겪은 이야기들, 생각들을 단편적으로 담담하게 썼지만 그 공감력은 대단하다. 이야기 하나하나에서 삶의 진솔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편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관련 성경구절로 이야기의 주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신앙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와 주님 뜻대로의 차이” 제목 등 19개의 이야기, 2부에는 “생명을 나누는 사랑” 제목 등 18개의 이야기, 3부에는 “거듭나던 날” 제목 등 19개의 이야기, 4부에는 “교회는 생명이요 감사는 황금이다” 제목 등 20의 이야기 등 총 76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신학교 졸업 후 송파 산성교회에

2014년, IS 세력 확대로 얼룩진 한 해!

(1면에서 계속)

연합감리교회는 동성결혼을 집례한 프랭크 쉼퍼 목사의 성직을 박탈했으나 나중에 동 교단 최고 법리부 판례로 다시 복직시켰다. 미국장로교회 총회는 주별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동성결혼 집례를 목회자들에게 허용했고, 모라비언교회 역시 게이와 레즈비언들에게 안수를 용인했다.

5. 에볼라 창궐 지역에서 크리스천의 사와 사역자들 활동



거의 6000명의 생명을 앗아가며 무서운 속도로 기세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공포’ 속에서도 크리스천 의사나 사역자들의 활동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료선교사인 켄트 브랜틀리와 낸시 라이볼의 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6.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에 대한 주류교단과 라티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



미국의 최대 과제 중인 하나인 이민정책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안에 대해 노선에 따른 찬반이 결정됐다. 진보적인 주류교단과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히스패닉 복음주의자들은 쌍수를 들어 오바마 이민개혁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아직까지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넘어서신 지나친 결정을 했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시행될 이민개혁 정책을 대비해 일부 기독교 단체들에서는 이민자들을 위해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7. ‘2014 노벨 평화상에 17세 소녀 유사프자이 공동 선정



여성의 인권과 평등을 무시하는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여자이지만 학교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총격을 받은 17세 소녀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는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 17세 소녀에게 노벨 평화상이 돌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 결정이다.

8. 퍼거슨 사태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지지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인종갈등이 표면화된 사건인 ‘퍼거슨 사태’에 대해 크리스천 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하면서, 평화적인 시위로 부정의를 시정해나갈 것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뉴욕 배심원들에 의해서 또 다시 백인 경찰관의 정당성을 옹호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9. 여성 성직자들의 약진



여성 성직자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약진을 보이고 있다. 성공회 본산(the Church of England)에서는 여성을 감독으로 선출했고, 안식일 교단에서조차도 2015년부터는 여성에게 성직 안수를 허용했다. 따라서 처음으로 여성 성직자들이 미 주류교단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개 교단의 수장이 됐고, 미 해군 역시 여성 성직자를 군종 최고선임자로 임명했다.

10. 인도 힌두국수주의자인 모디(N. Modi) 국무총리 임명(공동)

과거 전력이 의심스러운 극단 힌두 국수주의자 모디의 총리직 임명은 기독교와 갈



이 아직은 인도에서 소수 세력들에 대한 차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10. ‘2014 영화제는 바로 “성경의 해”(공동)



많은 영화 비평가들은 올 한해를 “성경의 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바로 히리우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근거한 영화들이 대거 상영됐기 때문이다. 영화의 주제들 역시 노아에서부터 출애굽 사건 그리고 휴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또한 흥행 실적 역시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면서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다사다난 2014년...본지 보도 선정한 10대 뉴스

(1면에서 계속)

4. “이탈총회 KAPC 명칭 사용 못한 다”(1481호 9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엄영민 목사)와 이탈총회 KAPC(총회장 이운영 목사)와의 지루한 전쟁은 결국 엄영민 총회장이 소속된 KAPC총회가 정통성이 있는 총회로 가닥이 잡히게 됐다. 이들 총회는 지난해 5월 LA에서 열린 제37회 총회에서 서가주노회의 사고노회 결정으로 인해 분열됐으며 두 총회는 같은 이름으로 총회를 운영해왔다.

엄영민 목사측은 22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운영 목사측 총회가 더 이상 KAPC 명칭 및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판정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KAPC 사태는 원고측 총회의 정통성이 인정된 것.

한편 이탈총회는 5월20일 나성열린문교회에서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WKPC, World Korean Presbyterian Church)라는 이름으로 제38회 총회를 개최했다.

5. 미주한인장로교 양대 총회(1484호 1면, 1485호 1면)



미주내 한인장로교 양대 총회인 해외한인장로회(KPCA)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성료 됐다. ‘빛의 자녀와 빛의 열매’(엡5:1-14)라는

주제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홀러튼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열린 KPCA총회는 총회장 후보 노진걸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으며 부총회장은 259표를 얻은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선출했다. 그 외 신임 임원단으로 △서기 김광철 목사(서노회) △부서기 안재욱 목사(수도노회) △회계 이기수 장로(서노회) △부회계 장영진 장로(캐나다총노회) △회록서기 정창문(뉴저지노회) △부회록서기 이형석(중남미노회) △영외회록서기 노희송 목사(토론토큰빛교회)를 세웠다. 해외한인장로회는 현재 노회 20개, 교회 462개, 목사 974명이 소속돼 있다.

한편,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막16:15)이라는 주제로 5월 20일부터 3박4일 동안 캐나다 토론토공방 매리웃 호텔에서 열린 KAPC 38회 정기총회에는 목사 총대 226명과 장로 총대 16명 등 총242명이 참석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정관일 목사는 ‘마지막 때 우리의 할 일’(막16:15) 주제와 동일한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첫날 회무처리는 오후 8시 30분부터 진행돼 고시부는 34명이 목사고시에 합격했음을 전했다. △총회장 정관일 목사(캐나다노회, 가든장로교회) △부총회장 김영수 목사(중남미노회, 사랑의교회) △서기 최동진 목사(남가주) △부서기 최성영 목사(워싱턴DC) △회록서기 김성득 목사(중부) △부회록서기 양수철 목사(가주) △회계 김용생 장로(뉴욕) △부회계 민제기 장로(뉴욕남노회)를 새롭게 선출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현재 30개 노회, 545개 교회, 47,419명의 세례교인이 등록돼 있다.

6. 2014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1488호 1면, 10면)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 최대 연례행사인 2014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가 지난 6월 13일부터 사흘간 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 담임)를 강사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렸다.

김승희 목사는 첫날 대회장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의 흔적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말씀을 잊지 말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대회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력과 풍성한 삶을 부여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강사 고훈 목사는 “지난 두 달 동안 웃지 못했다. 안산제일교회에서 14명의 학생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중 12명이 사망했다. 대한민국이 진노해바다에 빠져있는 것 같다. 한국이 이렇게 못났나. 그렇지 않다. 환난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자작시 ‘내 조국 코리아여 영원하게 하소서’를 낭독했다.

고훈 목사는 16일 한국출발에 앞서 플러스 금강산 연회장에서 목회자세미나를 인도했다.

7. 동성애, 미국장로교회 분열 촉진 독소!(1489호 1면)



미국장로교(PCUSA)가 드디어 성직자의 동성애자 결혼예식집전을 인정했다. 지난 6월 19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제 221차 정기총회에서 371 대 238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동 교단 성직자가 동성애자 결혼을 집례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428 대 175라는 투표 결과로 교단 헌법에 있는 결혼의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주에서는 동 교단 목회자가 결혼을 집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

다. 2011년 미국장로교가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허용하는 법안을 시행하자, 이에 반대한 소속 교회들이 새로운 교단인 ECO(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를 출범시켰으며 한인교회들도 다수 교단 이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텍사스 주 최대 규모인 달라스 하이랜드파크장로교회(HPPC)가 지난 9월 8일 780만 달러의 탈퇴금을 지불하고 미국장로교 탈퇴를 결정했다(1502호 3면). 780만달러는 교회 전체 건물가치의 현 감정가를 7천만 달러로 계산한 가격이다. 교회는 탈퇴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교회의 소유권을 미국장로교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남가주에 있는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도 지난 3월 23일 PCUSA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열고 91% 찬성을 얻은바 있다(1477호 9면). 현재 선한목자장로교회는 ECO 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8. 오바마케어 타격(1491호 1면)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에 또 한번의 타격을 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케어에서 기업주들에게 피임 등 임신조절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 개혁법(ACA)을 통해 피임, 불임수술 등 임신조절에 드는 비용도 보험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위헌결정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전역에서 진행 중인 100여건의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9. 교황 한국방문 기회로..(1497호 1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으로 바티칸이 아시아 지역에서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60%가 물론 지역이지만 가톨릭신자 분포는 12%에 불과하다. BBC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한국의 교황의 아시아 교세 확장을 위한 최적의 전초기지’라며 ‘교황은 즉위하면서부터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번 방한으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인구의 60%가 몰려있는데도 가톨릭 신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시아 순방을 결행하는 것은 바티칸으로서의 도전인 동시에 기회’라고 전했다.

10. 사상 최악의 성적표 받은 오바마(1509호 1면)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지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화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이번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둔 데는 보수 기독교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독교인들은 전국에 걸쳐 대부분 공화당 후보들을 선택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60%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다. 가톨릭 신자의 공화당 후보 지지율은 56%였다. 매주 교회에 나가는 신자들의 경우 공화당 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기독교인 82%, 가톨릭 신자 70%로 더욱 높았다.

(편집부)